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혜경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별 갈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
: 성별 집단자존감과 성별의
조절효과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지영

성별 갈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
: 성별 집단자존감과 성별의
조절효과

박혜경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지영

인 준 서

박지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11월

심사위원장 조 영 일 (인)

심 사 위 원 서 수 연 (인)

심 사 위 원 박 혜 경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에서는 성별 갈등이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성별 집단자존감이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 그리고 성별 집단자존감의 영향을 연구 참가자의 성별이 조절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29세까지의 4년제 대학 남녀 재학생 및 졸업생이었다. 본 연구는 갈등 상황이 묘사된 애니메이션을 감상한 후, 갈등 상황에 묘사된 두 집단을 포함한 여러 사회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 척도와 성별 집단자존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는 온라인 질문지 연구로 진행되었다. 실험 조건에서는 성별 갈등 상황을, 통제 조건에서는 성별과 무관한 갈등 상황을 제시하였으며 연구 참가자들은 두 조건 중 한 조건에 무선 할당되었다. 연구 결과, 연구 가설이 완전히 지지되는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조건 간 갈등 유형에 따른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 정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 갈등이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성별 집단자존감과 성별의 효과는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남자 연구 참가자들 사이에서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에 따라 인간의 필수적 본성 차원에서 이성 집단 비인간화의 정도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자들은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이 낮으면 인간의 필수적 본성 차원에서 이성 집단을 더욱 비인간화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하여 논하였다.

주요어: 성별 갈등, 이성 집단, 비인간화, 성별 집단자존감, 성별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7
1. 성별 갈등	7
2. 비인간화	8
3. 성별 갈등과 비인간화	13
4. 성별 집단자존감	16
III. 연구 문제 및 연구 가설	23
IV. 연구방법	24
1. 예비 연구	24
2. 본 연구	27
1) 연구 참가자	27
2) 측정도구	28
3) 연구 설계 및 절차	33
4) 분석 방법	34

3. 연구 결과	35
1) 비인간화 척도 및 성별 집단자존감 척도의 신뢰도	35
2) 조건 간 갈등상황에 대한 연구 참가자들의 지각	35
3) 갈등 유형, 이성 집단 비인간화(HN, HU), 성별 집단자존감, 성별의 상관관계	40
4) 갈등 유형에 따른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 점수의 차이	41
5) 성별 갈등과 이성 집단 비인간화의 관계에서 성별 집단자존감과 성별의 조절효과	46
 V. 종합 논의	 56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여학생 휴게실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29
표 2. 졸업생 고시실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30
표 3. 조건 간 애니메이션의 현실성에 대한 독립표본 <i>t</i> 검증 결과	37
표 4. 조건 간 애니메이션의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독립표본 <i>t</i> 검증 결과	37
표 5. 조건 간 애니메이션 속 문제 의견상충에 대한 독립표본 <i>t</i> 검증 결과	37
표 6. 남자 참가자의 남학생, 여학생 입장에 대한 대응표본 <i>t</i> 검증 결과 ·	38
표 7. 여자 참가자의 남학생, 여학생 입장에 대한 대응표본 <i>t</i> 검증 결과 ·	38
표 8. 보다 공감하는 입장 선택에 대한 성별 차이	38
표 9. 재학생 참가자의 재학생, 졸업생 입장에 대한 대응표본 <i>t</i> 검증 결과	39
표 10. 졸업생 참가자의 재학생, 졸업생 입장에 대한 대응표본 <i>t</i> 검증 결과	39
표 11. 보다 공감하는 입장 선택에 대한 재학 여부 차이	40
표 12. 주요 변수 간 상관	41
표 13. 주요 척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42
표 14. 갈등 유형에 따른 성별 집단 별 HN 점수 차이에 대한 기술통계	44
표 15. 갈등 유형에 따른 성별 집단별 HN 점수에 대한 혼합변량분석 결과	44
표 16. 갈등 유형에 따른 성별 집단 별 HU 점수 차이에 대한	

기술통계	45
표 17. 갈등 유형에 따른 성별 집단 별 HU 점수에 대한 혼합변량분석 결과	45
표 18. 이성 집단 비인간화(HN)를 예측하는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표	47
표 19. 이성 집단 비인간화(HN)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47
표 20. 이성 집단 비인간화(HU)를 예측하는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표	48
표 21. 이성 집단 비인간화(HU)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48
표 22. 성별 집단자존감과 이성 집단 비인간화(HN)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분석	51
표 23.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 별 이성 집단 비인간화(HN)에 대한 독립표본 <i>t</i> 검증	52
표 24. 성별 집단자존감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53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 모형	23
그림 2. 갈등 유형에 따른 성별 집단 별 비인간화 점수(HN) 차이	44
그림 3. 갈등 유형에 따른 성별 집단 별 비인간화 점수(HU) 차이	45
그림 4.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에 따른 이성 집단 비인간화 점수(HN) 차이	52
그림 5. 성별 집단자존감과 이성 집단 비인간화(HN)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5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6년 5월 17일 서초동의 노래방 공용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식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인지 혹은 가해자의 정신 질환에 의한 묻지 마 범죄인지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는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범행 장소에서 1시간 이상 범행 대상으로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는 점과 평소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정신 질환에 의한 묻지 마 범죄로 보는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4번이나 치료를 받은 조현병 환자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사건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지만, 사람들이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을 둘러싼 남성과 여성의 반응은 판이하게 달랐다¹⁾.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 여성에 대한 추모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이나영, 2016). 반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사건을 묻지 마 범죄로 바라봤으며,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불편감을 표현하였다. 실제로 강남역 10번 출구에 시민들이 붙인 추모 포스트잇 1004개를 경향신문 사회부 사건팀이 전수조사 및 분석한 결과, 여성들은 강남역 살인 사건에서 공포를 느끼고 여성혐오로 해석하는 시각이 두드러졌다(경향신문

1) 박소영 (2017, May 05). “강남역 살인사건이 남녀커플들에게 미친 영향”, 한국일보.

신은별 (2017, May 05). 여성은 “여전히 무섭다” 남성은 “왜 그리 예민하나”, 한국일보.

이상무 (2017, May 05). “강남역 살인사건 1년, 사회는 변한 게 없어요”, 한국일보.

사회부 사건팀, 2016). 이처럼 사건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강남역 살해 사건에 대한 위와 같은 대중의 반응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회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여성 혐오’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면서 성별 갈등이 수면 위로 급격하게 떠올랐다. 이전에는 개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이거나 불편하더라도 사회 분위기 상 참고 넘어갔던 문제들이 여성혐오라는 프레임 하에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모든 일에 여성혐오라는 이름을 붙인다며 여성들의 문제제기를 과잉반응으로 보는 입장 역시 생겨났다. 여성 혐오에 대한 반발로 ‘여성들이 남성혐오’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정희진(2016)에 따르면, 여성 혐오와 동등한 남성 혐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회에서 여성 집단과 남성 집단은 계급 제도(sex class) 아래에서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으며, 여성과 남성은 대칭적 집단이 아니므로 여성혐오와 동등한 수준의 남성혐오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남성혐오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한국사회에서 성별 갈등은 과거보다 한층 심화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격화된 성별 갈등 양상은 온라인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 업체인 다음소프트에 따르면, 남성혐오를 뜻하는 신조어가 2016년 5월에 온라인 상에서 2건 사용된 반면, 그 다음달에는 7596건으로 늘어났다고 한다²⁾. 또한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블로그와 트위터에서 사용된 이성에 대한 혐오 표현을 분석한 결과, 남성혐오 언급은 월평균 1만 번, 여성혐오 언급은 월평균 8만 번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온라인 상에서 이성에 대한 비하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될 정도로 여성 집단과 남성 집단 간에 갈등이 격화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성별 갈등

2) 조재성 (2015, December 02). “온라인 여성혐오·남성혐오, 6월 이후 ‘폭증’”, 이코노믹리뷰.

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개인이 이성 집단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만약 성별 갈등을 접한 상황에서 개인이 평소와는 다르게 이성 집단을 인식한다면, 성별 갈등이 단순히 남성과 여성이 대립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성 집단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바꾸는 등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에서 남녀 청소년 및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83.7%가 여성혐오 표현을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한국 사회의 여성 중에서 여성혐오 표현에 해당하는 여성의 비율을 추정하게 하였을 때,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그 비율을 과다 추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성별 갈등은 이성 집단 간에 갈등이 격화되었다는 점에서도 문제이지만, 이성 집단이라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 갈등이 부각되지 않는 상황에서와는 다르게, 성별 갈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는 이성 집단을 비인간화(dehumanization)하는 경향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비인간화는 ‘타인을 자신과 동등한 인간이 아닌, 자신보다 낮은 존재로 지각하거나 취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Haslam & Stratemeyer, 2016). 비인간화를 검증한 연구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비인간화에 대한 초기 이론들이 비인간화를 갈등 상황에서 관찰되는 극단적인 현상으로 정의하는데 반해, 최근의 이론적 접근은 비인간화를 일상적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스펙트럼을 넓게 보고 있다(Haslam & Loughnan, 2013).

본 연구에서 비인간화 변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곧, 사람들이 이성 집단을 온전한 인간보다 더 낮은 존재로 지각하는지를 탐색한다는 것이다. 이성 집

단을 단순히 비하하거나 평가 절하하는 것이 아닌 비인간화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 차별·비하·혐오 표현이 2011년부터~2016년 사이에 300배 이상 늘었으며 각각 여성혐오, 남성혐오 표현으로 논란이 되는 사이트들에 차별 비하 표현 관련 시정 요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성 집단에 대한 비하 표현의 증가율이나 내용이 이성 집단을 단순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더 심한 폄하 양상을 띠는 것으로 여겨져 비인간화라는 변수로 이성 집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성별 갈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를 검증한 선행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혐오 표현과 비인간화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를 통해 성별 갈등이 이성 집단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비인간화와 관련된 한 연구에서, 성소수자 남성을 비하하는 욕설에 노출된 사람들은 성소수자 남성의 인간성을 낮게 지각하고, 성소수자 남성으로부터 신체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행동을 보였다 (Fasoli, Paladino, Carnaghi, Jetten, Bastian, & Bain, 2016). 이처럼 성소수자 남성에 대한 혐오와 비하를 내포하는 언어에 노출되는 것이 성소수자 남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어서, 성소수자 남성이 인간성을 덜 보유하고 있다고 지각하게 만든다면, 성별 갈등이 격화된 한국 사회의 분위기도 그와 같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앞서 기술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의 연구에서 온라인에서 여성혐오 표현을 접한 응답자의 대부분이, 한국 사회의 여성 구성원 중에서 여성혐오 표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과다 추정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혐오표현이 해당 집단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성별 갈등이 부각되면서 이성에 대한 비하 표현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자주 사용되며 이성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생겨났는데, 이와 같은 이성에 대한 비하 표현과 부정적

인 분위기가 성소수자 남성에 대한 욕설처럼 이성 집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차 변수로 성별 집단자존감을 선정하여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별 집단자존감은 사회적 범주의 하나인 ‘성’에 기초한 집단자존감으로, 자신이 속한 성별집단에 대한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외부적 인식을 포괄하는 개념을 뜻한다(Crocker & Luhtanen, 1990a; 원숙연, 최윤희, 2015). 사회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집단자아존중감을 유지하고 고양시키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집단보다 내집단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내집단 편애를 보인다(Tajfel, 1982; 김혜숙, 1993). 또한 Crocker와 Luhtanen(1990a)에 따르면, 집단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 집단자아존중감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집단자아존중감의 유지와 고양을 위해 더욱 내집단 편애를 보인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하려는 성별 갈등은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간에 대립하는 상황으로, 성별 집단자아존중감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이 높은지 혹은 낮은지에 따라 소속되지 않은 성별집단(외집단)에 대한 비인간화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덧붙여,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남성은 사회적으로 고 지위 집단, 여성은 저 지위 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김혜숙, 1994, 2004; Major, 2002),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따라 소속된 성별 집단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성별 집단자존감의 영향이 연구 참가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성별 갈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개인이 이성 집단을 비인간화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성별 갈등과 이성 집단 비인간화 사이의 관계가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성별 집단

자존감의 영향을 연구 참가자의 성별이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성별 갈등이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 성별 갈등의 영향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성별 갈등

일반적으로 성별 갈등(gender conflict)이란 사회에서 이성 집단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의미한다. 성별 갈등은 다른 사회 갈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영역에 걸쳐 있고, 다양한 쟁점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노동시장에서 관찰되는 직장에서의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의 역할분담과 차등 대우, 국가 정책에서 발생하는 여성 고용 할당제와 같이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하는 정책의 공정성 문제 등이 성별 갈등에 해당된다(이수연, 안상수, 황정미, 김인순, 백기복, 2006).

이와 같이 성별 갈등이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는 현상인 만큼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성별 갈등의 어떠한 내용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갈등을 ‘이성 집단 간에 대립하고 논쟁하는 상황’으로 범위를 좁혀 정의하였다. 이는 서론에서도 서술하였듯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별 갈등은 하나의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성별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논쟁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이성 집단 간에 대립하고 논쟁하는 상황’은 ‘특정 사안에 대한 이성 집단 간의 가치 차이로 인해 서로 충돌하고 적대시하는 상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남녀 간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생겨서 논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태도 차이가 성평등 의식 수준에서 비롯되었다는 연구 결과(이수연, 안상수, 황정미, 김인순, 백기복, 2006)

를 통해 지지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성평등 의식 점수 역시 남성보다 높았다. 그렇지만 여성 집단과 남성 집단 내부에서도 성평등 의식 수준에 따라 정책에 대한 찬성 정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성별 집단 간에, 그리고 개인 간에 성평등 의식이라는 가치를 어느 정도로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성별 갈등을 ‘특정 사안에 대한 남녀의 가치 차이에서 비롯된 성별 간 논쟁’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검증하려는 성별 갈등 양상을 일상적인 논쟁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2. 비인간화

비인간화는 ‘타인을 온전한 인간보다 낮은 존재(less than fully human)인 것처럼 지각하거나 취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비인간화는 일상생활부터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회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민자나 외국인을 개, 돼지, 쥐 등과 같은 동물에 비유하는 것이나 전쟁 상황에서 적국의 포로를 자국민과 동등한 인간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Haslam, 2006).

타인을 온전한 인간보다 낮은 존재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비인간화는 타인을 단순히 비하하거나 평가 절하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렇지만 비인간화가 매우 흔하지만, 몹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심리적 현상으로 여겨진다는 점(Haslam & Loughnan, 2013)이 비인간화와 타인을 단순히 비하 혹은 평가 절하하는 것을 구분하는 특징이다. 타인을 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와는 다르게, 타인 혹은

특정 집단을 비인간화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야기될 것으로 추정된다(Haslam & Loughnan, 2013). 첫째, 타인이나 특정 집단을 비인간화하면 비인간화한 대상에 대하여 친사회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이 감소하게 된다. 둘째, 비인간화는 반사회적 행동을 수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을 암묵적으로 비인간화하는 남성은 여성에 대해 성적 괴롭힘을 할 가능성이 있다(Rudman & Mescher, 2012). 셋째, 비인간화는 비인간화한 대상의 도덕적 지위를 약화시키거나 없앤다. 예를 들면 비인간화한 대상의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처벌할 만한 가치를 덜 지각하지만, 동시에 도덕적 행동의 범주에 포함되어 보호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Bastian, Lahan, Wilson, Haslam, & Koval, 2011).

비인간화와 관련한 연구는 2000년대 초부터 해외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비인간화라는 개념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Nick Haslam이 2006년에 비인간화에 대하여 이론적 기반을 정리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비인간화는 사람이 보유한 인간성(humanness)의 어떤 측면을 부정하는지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된다.

우선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humanness)은, 인간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지는 본성(human nature; HN)과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독특한 본성(human uniqueness; HU)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Haslam, 2006). 인간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지는 본성은 사람의 전형적인 특성이나 필수적인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본성은 인간을 인간과 관련 있는 동물의 범주에서 분리시켜주는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필수적인 본성은 인간을 다른 종과 구별시켜주는 인간의 독특한 본성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호기심은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지만, 호모 사피엔스를 다른 종과 구별시켜주는 특성은 아니다.

위와 같이 Haslam은 인간의 필수적인 본성과 인간의 독특한 본성이 인간

성의 구별되는 측면이며, 각각의 측면을 타인이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부정될 때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비인간화가 발생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가운데 타인이 인간의 필수적인 본성을 보유한 것을 부정할 때, 발생하는 비인간화는 기계적 비인간화(mechanistic dehumanization)이다(Haslam, 2006). 부정되는 인간의 필수적 본성과 그로 인해 파생하는 기계적 비인간화의 속성은 서로 짝을 이룬다. 구체적으로, 타인이 보유한 인간의 필수적 본성 중에서 정서적 반응(emotional responsiveness)이 부정되면, 둔한(inertness) 사람으로 지각되어진다. 대인관계에서의 따뜻함(interpersonal warmth)이 부정되면 냉담한(coldness) 사람으로, 인지적 개방성(cognitive openness)이 부정되면 융통성 없는(rigidity) 사람으로, 자율성·개성(agency, individuality)이 부정되면 수동적이고 다른 사람과 대체할 수 있는(passive, fungibility) 사람으로, 그리고 깊이(depth)가 부정되면 얕박한(superficiality) 사람으로 지각자에게 비춰진다.

타인이 인간의 독특한 본성을 보유한 것을 부정할 때, 발생하는 비인간화는 동물적 비인간화(animalistic dehumanization)이다(Haslam, 2006). 부정되는 인간의 독특한 본성과 그로 인해 파생하는 동물적 비인간화의 속성은 서로 짝을 이룬다. 예를 들어 타인이 보유한 인간의 독특한 본성 중에서 정중함(civility)이 부정되면, 교양 없는(lack of culture) 사람으로 지각되어진다. 세련됨(refinement)이 부정되면 거친(coarseness) 사람으로, 도덕적 민감성(moral sensibility)이 부정되면 도덕관념 및 자제력이 없는(amorality, self-restraint) 사람으로, 이성 및 논리(rationality, logic)가 부정되면 비이성적(irrationality)이며 충동적(instinct)인 사람으로, 그리고 성숙함(rationality)이 부정되면 어린 아이 같이 순진한(childlikeness) 사람으로 지각자에게 비춰진다. 종합하자면, 비인간화의 두 가지 형태는 인간 본성의 구별되는 두 가지 차원에 기초하여 발생한다(Haslam, Bain, Douge, Lee, & Bastian, 2005).

각각의 비인간화가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을 살펴보면, 기계적 비인간화는 집단 간 맥락과 대인 간 맥락에서 모두 발생하며 동물적 비인간화는 주로 집단 간 맥락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고된다(Haslam, 2006). 본 연구에서는 성별 갈등 상황에 처한 개인이 이성 집단을 비인간화하는지를 검증하려고 하므로, 집단 간 맥락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계적 비인간화와 동물적 비인간화가 모두 고려될 수 있다. 그렇지만 특정 형태의 비인간화를 선정하기보다는, 두 가지 형태의 비인간화를 모두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해외에서는 비인간화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들어서 많이 진전되었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한국 사회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비인간화가 나타날지 가늠할 자료로서의 선행연구가 없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비인간화를 선정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모두 측정하여 어떠한 형태의 비인간화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지 탐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상대방을 자신과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인간화는 전쟁과 같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비인간화는 갈등과 폭력 이외의 다양한 영역과 일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난다고 보고되었다(Haslam, 2006, 2016). 구체적으로, 비인간화는 민족과 인종 간에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민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민족·인종 간에 발생하는 비인간화는 일부 집단이 다른 집단의 인간성을 말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집단 간 갈등의 맥락에서 파생된 것이며, 이러한 종류의 비인간화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아프리카인을 유인원과 비교하는 것, 이민자나 이방인과 같은 다른 집단을 개, 돼지, 쥐, 기생충이나 곤충 등에 비유하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비인간화는 의료업 종사자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관찰된다(Trifiletti, Bernardo, Falvo, & Capozza, 2014). 간호사, 물리 치료사 등과

같은 의료업 종사자는 환자의 고통에 동화되거나 압도될 경우,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낀다. 따라서 이들은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들이 돌보는 환자를 마치 물체처럼 취급하는 태도를 취한다. 환자에 대해 기계적 비인간화하는 태도와 동물적 비인간화하는 태도 모두 의료업 종사자의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비인간화의 하위 유형인 유인원화(infrahumanization)에 대한 연구들은 내집단과 외집단,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비인간화를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내집단 편애와는 무관하게, 외집단보다 내집단에 인간의 본성을 더 많이 귀인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Leyens, Cortes, Demoulin, Dovidio, Fiske, Gaunt, et al., 2003). 또한 사람들이 자기 고양과는 무관하게, 타인보다 자신에게 인간성을 더 많이 귀인하는 자기 인간화(self-humanizing)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Haslam, Bain, Douge, Lee, & Bastian, 2005).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사회적 맥락인 성별 갈등 상황, 즉 소속 성별집단(내집단)과 소속되지 않은 성별집단(외집단) 간의 일상적인 갈등 상황에서도 비인간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집단-외집단 간 여러 갈등 상황 중에서 성별 갈등 상황을 선택하였으며, 해당 갈등 상황에서 개인이 이성 집단을 비인간화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인간화를 연구하는 일상적인 갈등 맥락으로 성별 갈등 상황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개인이라면 누구나 자연적으로 소속되는 사회 집단의 한 범주이며, 그런 점에서 이성 혹은 여성 집단과의 관계는 사회에서 살면서 가장 많이 형성되는 관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성별 갈등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겪는 갈등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성별 갈등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흔하게 겪는 집단 간

갈등이며, 다른 사회 갈등에 비해 다양한 영역과 쟁점을 포괄하므로, 일상생활에서 비인간화가 잘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여성혐오 문제가 대두되면서 남성혐오라는 용어가 생기는 등 성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갈수록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으므로 비인간화를 탐색하는 갈등 상황으로 선정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덧붙여 성별 갈등 상황에서 개인이 이성 집단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추후에 개인이 이성 집단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성 집단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면, 개개인의 태도를 통해 한국 사회의 성별 갈등이 향후에 어떠한 양상으로 흘러갈지 추측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성별 갈등을 접한 개인이 이성 집단을 강하게 비인간화한다면, 그 결과로 비인간화한 집단에 대해 친사회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이 감소할 것이며(Vaes, Paladino, & Leyens, 2002; Haslam & Loughnan, 2013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성별 갈등을 재차 접하였을 때 이성 집단에 대한 반응이 더 부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한국 사회의 성별 갈등은 더 격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3. 성별 갈등과 비인간화

성별 갈등 상황에서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를 다룬 기존의 심리학 연구는 주로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검증하였으며(Haslam & Loughnan, 2013), 성적 대상화 이외의 다른 맥락에서는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려는 연구 문제는 성적 대상화와는 무관하므로, 성별 갈등으로 인해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가 나타나지는 기존의 비인간화 연구들에서 밝혀진 요인을 토대로 추론하였다.

우선, 비인간화에 대한 초기 이론을 제안한 Schwartz와 Struch(1989)의 가치를 근거로 삼을 수 있다(Schwartz & Struch, 1989; Haslam, 2006; Haslam & Loughnan, 2013에서 재인용). 이들은 집단의 가치체계는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본질적인 인간성에 대한 통찰력을 드러낸다고 설명하였다. 만약 외집단이 내집단과 다른 가치를 보유한 것으로 지각되면, 외집단 구성원들은 내집단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인간성이 부족한 것으로 비춰지게 된다. Schwartz와 Struch의 이론을 정리하자면, 사람들은 외집단 구성원이 친사회적 가치가 부족하거나 내집단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다고 지각할 때, 혹은 두 가지 모두로 지각할 경우에 외집단 구성원을 비인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치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외집단 구성원들이 내집단 구성원들과 유사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면, 외집단을 인간적으로 여기게 되어(humanizing) 외집단에 대한 비인간화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McDonald, Porat, Yarkoney, Tagar, Kimel, Saguy, & Halperin, 2015).

앞서 ‘성별 갈등’ 부분에서 기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정의한 성별 갈등은 ‘특정 사안에 대한 이성 집단 간의 가치 차이로 인해 서로 충돌하고 적대시하는 상황’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성 집단이 동성 집단과 다른 가치를 보유하여 논쟁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Schwartz와 Struch의 설명처럼 이성 집단의 인간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각하여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각된 위협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위협이라는 상황적 요인은

여러 비인간화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진 요인으로, 비인간화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설명해준다(Haslam & Loughnan, 2013). 위협과 비인간화의 관계는 몇몇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심각한 위협으로 지각할수록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비인간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Maoz & McCauley, 2008). 본 연구에서 검증하려는 성별 갈등은 성별 집단 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논쟁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동성 집단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지각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성 집단을 비인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한 성별 갈등은 남성과 여성 간에 가치의 차이로 의견이 대립하고 논쟁하는 상황이므로, 이성 집단이 동성 집단과는 다른 가치를 보유한다는 점에서 동성 집단과 공유하는 인간성이 부족하게 지각될 수 있어서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론하였다. 또한 성별 집단 간에 벌어진 논쟁이 동성 집단에 대한 위협으로 지각될 수 있으므로 이성 집단을 비인간화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성별 갈등이 일상적인 논쟁 상황이라는 점에서 Schwartz와 Struch의 이론과 위협이라는 상황적 요인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Schwartz와 Struch의 주장을 포함하여 비인간화에 대한 초기 이론들은 비인간화를 갈등 상황에서 관찰된 극단적인 현상으로 이해하였으며, 위협과 비인간화에 대한 연구들이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 민족 간 갈등(Maoz & McCauley, 2008)이나 테러에 대한 위협(Goldenberg, Heflick, Baes, Motyl, & Greenberg, 2009) 등 심각한 위협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별 갈등과 같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위협이 비인간화를 발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비인간화에 대해 새롭게 제기된 이론들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비인간화에 대한 최근 이론들과 연구들은 질적, 양

적 측면에서 비인간화가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고 주장한다(Haslam & Loughnan, 2013). 노골적이며 심한 것부터 미묘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까지 비인간화의 범위를 넓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외현적인 비인간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암묵적인 형태의 비인간화가 존재하며, 특정인 혹은 특정 집단의 인간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절대적인 비인간화 이외에 다른 집단에 비해 인간성을 낮게 지각하는 상대적인 비인간화 역시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상에서 다소 미묘하고 완곡한 형태로 발생하는 비인간화의 예로 유인원화(infrahumanization)를 들 수 있다(Leyens, Demoulin, Vaes, Gaunt, & Paladino, 2007). 연구자들은 심각한 집단 간 적대감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사람들은 내집단 구성원들보다 외집단 구성원들이 덜 인간적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지각 과정, 즉 유인원화가 굉장히 교묘하게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인간만이 독특하게 느낄 수 있는 2차 정서를 내집단 구성원들에 비해 외집단 구성원들이 적게 경험한다고 사람들이 지각하는 것이 유인원화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비인간화의 범위가 다양하다는 새로운 이론적 관점을 고려했을 때, 앞서 기술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성별 갈등 상황에서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한 성별 갈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는, 기존 연구들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측면의 비인간화이지만 위와 같은 근거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졌다.

4. 성별 집단자존감

성별 집단자존감은 자신이 속한 성별 집단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개인

의 인식과 외부적 인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집단 간 비교 및 차별 등을 반영한다(Cowan, Neighbors, DeLaMoreaux, & Behnke, 1998; Crocker & Luhtanen, 1990a, 1992; Ellemers et al, 2004; 원숙연, 최윤희, 2015에서 재인용).

Tajfel(1982)의 사회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자아개념은 개인적 정체성(personal identity)과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적 정체성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과 개성에 근거하여 갖게 되는 자아개념, 즉 개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를 의미한다. 반면, 사회적 정체성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에 대해 가지는 소속감 및 그와 결부된 정서와 감정에 근거한 자아개념, 즉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를 뜻한다. Tajfel(1978)은 사회적 정체성을 “자신이 사회집단의 성원이라는 지식과 그 집단의 성원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 및 정서적 의미로부터 파생되는 자기 개념의 일부”라고 정의하였다(p. 63). 사회적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는 사회 집단의 범주에는 국가, 민족, 성, 지역과 같이 개인에게 자연적으로 부과된 집단들, 그리고 학교, 회사와 같이 개인이 선택하여 속한 집단들이 포함된다.

사회정체성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개인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Tajfel, 1982). 따라서 사람들은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되면, 사회적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외집단보다 내집단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집단 편애를 보이거나 외집단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Crocker & Luhtanen, 1990a; Tajfel, 1982; 김혜숙, 1993). 이러한 행동이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성 혹은 높은 수준의 집단자아존중감을 만들기 때문이다.

Luhtanen과 Crocker(1990a)는 사회정체성 이론의 연장선 상에서 자아존중감을 개인자아존중감(이하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아존중감(이하 집단자존감)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자존감은 개인적 정체성의 연장선에서 개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는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집단자존감은 사회적 정체성의 연장선에서 개인이 속한 사회 집단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집단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Luhtanen과 Crocker(1992)는 집단자아존중척도(CSES: Collective Self-Esteem Scale)를 개발하였다. 집단자존감은 다차원적 개념이므로, 이 척도는 다음과 같은 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된다.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해 얼마나 노력할 의지가 있는가를 의미하는 멤버십 차원,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만족 및 자부심을 나타내는 사적 차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인식하는지를 나타내는 공적 차원,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개인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가지는 중요성을 의미하는 정체성 차원이다.

Crocker와 Luhtanen(1990b: 김혜숙, 1993에서 재인용)은 사람들이 자존감에서 개인차를 보이듯이 집단자존감에 있어서도 개인차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집단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더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들이며, 집단자존감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집단자존감을 유지하고 고양시키기 위해 더 내집단 편애를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집단자존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내집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므로 집단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내집단을 편애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보다는, 외집단을 폄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Crocker, Blaine, & Luhtanen, 1993: Long & Spears, 1998에서 재인용). 실제로 Crocker와 Luhtanen(1990a)은 집단자존감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집단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사회정체성에 긍정적인 피드백의 영향은 최대화

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평정하는 등 더욱 집단자존감을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렇지만 집단자존감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욱 내집단 편애를 보이며 집단자존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더욱 외집단 폄하를 보인다는 Crocker와 Luhtanen의 주장을 검증한 연구들의 결과는 비일관적이다. Branscombe와 Wann(1994)은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 하에서 국가 정체성과 집단자존감의 수준이 외집단 폄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는데, 정체성 위협 조건에서 연구 참가자의 국가 정체성이 높으며 위협으로 인해 집단자존감 수준이 감소한 경우, 외집단 폄하가 일어나며 이후에 재측정한 집단자존감 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집단자존감 수준이 낮은 개인이 외집단을 폄하한다는 Crocker와 Luhtanen의 주장을 지지한다. 반면, Long과 Spears(1998)의 연구 결과는 집단자존감 수준이 높은 개인이 내집단 편애를 더 보인다는 Crocker와 Luhtanen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들은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이 대인 간 비교, 집단 간 비교에서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 공적 집단자존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개인자존감 수준이 높은 사람들처럼 내집단 편애를 더 많이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비일관된 결과는 집단자존감 척도에서 서로 다른 하위 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Crocker와 Luhtanen의 주장을 지지한 Branscombe와 Wann(1994)의 연구에서는 사적 차원의 집단자존감 2문항을, 지지하지 않은 Long과 Spears(1998)의 연구에서는 공적 차원의 집단자존감 4문항을 사용하여 연구 참가자들의 집단자존감 수준을 측정하였다. 종합하자면, 선행연구들에서 어떤 하위 척도를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연구 결과들이 비일관적으로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집단자존감 수준에 따라 내집단 편애 혹은 외집단 폄하를 다르게

보일 것이라는 사회정체성 이론과 Crocker와 Luhtanen(1990a, 1993)의 주장을 기각시키기에는 근거로 삼을 연구 결과들이 불명확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멤버십 차원, 사적 차원, 공적 차원, 정체성 차원 등 4개의 하위척도를 모두 포함한 집단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사회정체성 이론과 Crocker와 Luhtanen(1990a, 1993)의 예측을 토대로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에 따라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한 문제인 성별 갈등은, 본인이 소속된 성별 집단(내집단)과 소속되지 않은 성별 집단(외집단, 이성 집단) 간의 대립이라는 점에서 집단자존감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위에서 기술하였듯이 사회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사회 집단의 범주에는 자연적으로 부과되는 성 역시 포함되므로, 성별 집단자존감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이라는 사회적 범주에 기초한 성별 집단자존감을 이성에 대한 비인간화를 설명할 수 있는 개인차 변수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성별 집단자존감이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와 어떠한 관계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예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 갈등 상황에서 성별 집단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성 집단을 비인간화하는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 반대로 성별 집단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성 집단을 비인간화하는 것보다 동성 집단을 고양할 것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성별 갈등 상황은 소속된 성별 집단(내집단)과 소속되지 않은 성별 집단(외집단, 이성 집단)이 대립함으로써 성별 집단자존감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집단자존감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집단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집단자존감의 유지와 고양을 위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욱 내집단 편애를 보이며, 집단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더욱 외집단 폄하를 보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예상하였다(Crocker &

Luhtanen, 1990a).

다음으로, 성별 집단자존감이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참가자의 성별이 조절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가자가 소속된 성별 집단이 한국 사회에서 고 지위 집단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저 지위 집단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성별 집단자존감이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우선, 남성들 사이에서는 성별 집단자존감이 낮을수록 이성 집단을 더 비인간화하지만, 여성들 사이에서는 성별 집단자존감에 따라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 정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성별 집단자존감에 따라 본인이 속한 성별 집단에 대해 다른 태도를 지닌다는 점(Cowan, Neighbors, DeLaMoreaux, & Behnke, 1998)과 성별 집단자존감과 성차별적 인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Cowan et al, 1998; Crocker & Luhtanen, 1990a, 1992; Ellemers et al, 2004; 원숙연, 최윤희, 2015). 관련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 집단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소속 성별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자신감을 가지므로 다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 차별적 인식이 낮을 것이다. 반면, 성별 집단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성별 집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적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성별 집단 간의 지위 차이를 검증하였기 때문에, 남성을 고 지위 집단, 여성을 저 지위 집단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김혜숙, 1994, 2004; Major, 2002). 여성과 같이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저 지위 집단에 속하면, 남성과 같이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강자인 고 지위 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소속 성별 집단을 부정적으로 여길 것이다. 이는 본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소속된 성별 집단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원숙연, 2005; 원숙연, 2015에서 재인용).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별 집단자존감이 낮지만 고 지위 집단에 속한 남성은 오히려 이성

집단을 더 부정적으로 폄하할 것이다. 남성은 이미 기득권층인 고 지위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저 지위 집단인 여성 집단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소속된 집단의 상대적인 우월성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정리하면, 성별 집단의 사회적 지위가 성별 집단자존감이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지위 집단에 속하는 남성들이 성별 집단자존감이 위협받는 성별 갈등을 접하게 되면, 성별 집단자존감이 높을 경우에는 집단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이성 집단을 폄하하기보다는 동성 집단을 고양시킬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성별 집단자존감이 낮을 경우에는 집단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성 집단(여성 집단)을 더 비인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집단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외집단을 폄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집단자존감을 회복하기 때문이며, 또한 고 지위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저 지위 집단을 폄하하여 소속 집단의 상대적인 우월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집단자존감을 고양시키려 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저 지위 집단에 속하는 여성들이 성별 집단자존감이 위협받는 성별 갈등을 접하게 되면, 성별 집단자존감에 따라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 정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별 집단자존감이 높을 경우에는, 성별 집단자존감이 높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동성 집단을 고양시키는 방식으로 집단자존감을 회복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별 집단자존감이 낮을 경우에는, 상대적 약자인 저 지위 집단(동성 집단)으로부터 본인의 정체성을 분리하는 것이 집단자존감 회복에 더 도움이 되므로, 이성 집단(남성 집단)을 비인간화하기보다는 동성 집단(여성 집단)을 비인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Ⅲ. 연구 문제 및 연구 가설

연구문제 1. 성별 갈등 상황을 접한 사람들은 이성 집단에 대해 비인간화할 것인가?

연구가설 1. 성별 갈등 상황을 접한 사람들은 이성 집단을 비인간화할 것이다.

연구문제 2.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과 연구 참가자의 성별에 따라 성별 갈등 상황에서 이성 집단을 비인간화하는 정도가 달라질 것인가?

연구가설 2-1.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보다 성별 갈등 상황에서 이성 집단을 더욱 비인간화할 것이다.

연구가설 2-2. 고 지위 집단인 남성들은 성별 집단자존감이 낮을수록 이성 집단을 더 비인간화하지만, 저 지위 집단인 여성들은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에 따라 이성 집단을 비인간화하는 정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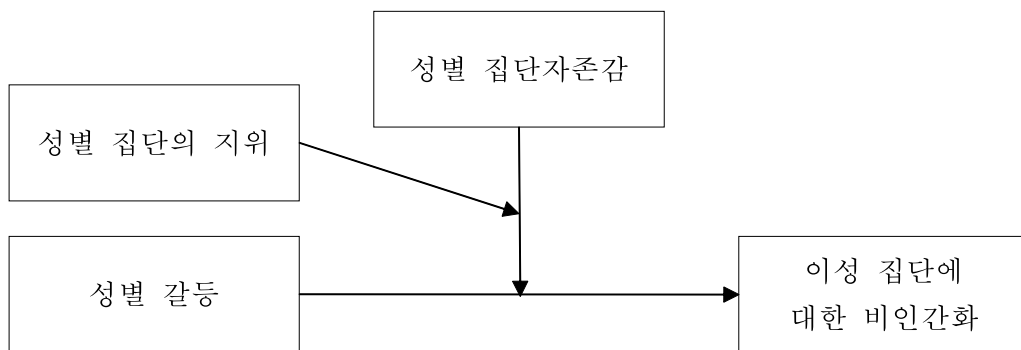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IV. 연구방법

1. 예비연구

본 연구에서 사용할 갈등 상황 시나리오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두 개의 예비연구를 계획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에 따라 다른 집단 갈등 시나리오와 성별 갈등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시나리오는 갈등을 빚는 두 집단을 제외하고는 ‘졸업생을 위한 공간(졸업생 고시실, 졸업생 동문회실) 설치를 둘러싼 재학생과 졸업생 간의 갈등’, ‘여학생을 위한 공간(여학생 휴게실) 설치를 둘러싼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갈등’과 같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비슷하도록 구성하였다. 예비연구 1을 통해 두 개의 재학생-졸업생 갈등 시나리오 중에서 보다 적절한 것을 택일하고, 선택된 재학생-졸업생 갈등 시나리오와 남학생-여학생 갈등 시나리오가 갈등 상황의 현실성 및 갈등의 심각성 수준에서 비슷한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예비연구 1에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41명(남성 22명, 여성 19명)이 자발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21.83세($SD=2.16$)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총 세 개의 시나리오를 읽고 졸업생 동문회실 시나리오와 졸업생 고시실 시나리오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현실에서 있을 법한 갈등 상황을 표현하였는지 선택한 후, 선택한 시나리오와 여학생 휴게실 시나리오에 묘사된 갈등의 현실성 수준과 갈등의 심각성 수준을 5점 척도(1점=매우 있을 법하지 않다/매우 갈등 상황 같지 않다, 5점=매우 있을 법하다/매우 갈등 상황 같다)로 응답하였다.

예비연구 1의 결과, 졸업생 동문회실 시나리오는 17명, 졸업생 고시실 시나리오는 24명이 선택하여 재학생-졸업생 갈등 시나리오로 고시실 시나리오

가 최종 선택되었다. 다음으로, 시나리오 속 갈등의 현실성 비교 결과, 졸업생 고시실 시나리오는 평균 3.79점($SD=0.59$), 여학생 휴게실 시나리오는 평균 4.08점($SD=0.88$)이었으며, 두 시나리오 간 갈등의 현실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t(23)=-1.57$, $p=.129$. 시나리오 속 갈등의 심각성 비교 결과, 졸업생 고시실 시나리오는 평균 3.54점($SD=0.72$), 여학생 휴게실 시나리오는 평균 3.67점($SD=1.05$)이었으며, 두 시나리오 간 갈등의 심각성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t(23)=-0.55$, $p=.588$. 더불어, 연구 참가자의 성별에 따른 시나리오 속 갈등의 현실성 및 갈등의 심각성 지각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각각 시나리오 2의 갈등의 현실성 및 심각성 지각 $t(22)=-0.64$, $p=.531$; $t(22)=-1.90$, $p=.070$; 각각 시나리오 3의 갈등의 현실성 및 갈등의 심각성 지각 $t(22)=0.33$, $p=.746$; $t(12.84)=-1.35$, $p=.201$.

요컨대, 예비연구 1을 통해 졸업생 고시실 시나리오를 선택하게 되었으며, 이 시나리오와 여학생 휴게실 시나리오가 갈등의 현실성 및 갈등의 심각성 측면에서 유사하게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않았으나, 연구 참가자들이 졸업생 고시실 시나리오를 여학생 휴게실 시나리오보다 덜 현실적이라고 지각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시나리오의 현실성을 보강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학생 휴게실 시나리오의 표현을 보다 매끄럽게 수정하였다.

예비연구 2에서는 예비연구 1을 통해 수정한 두 시나리오 속 갈등의 현실성과 갈등의 심각성 수준을 사람들이 비슷하게 지각하는지 재확인하였으며, 예비연구 1과 달리 시나리오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제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람들이 시나리오에 묘사된 갈등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느끼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예비연구 1을 통해 두 시나리오 속 갈등의 현실성 및 갈등의 심각성 수준이 비슷하게 통제되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예비연구 2에서는 시나리오를 기반으

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역시 갈등의 현실성과 심각성 측면에서 비슷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예비연구 2에는 예비연구 1에 참가하지 않은 4년제 대학 재학생 95명(남성 40명, 여성 55명)이 자발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23.82세($SD=2.39$)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다른 갈등(졸업생 고시실) 및 성별 갈등(여학생 휴게실)이 묘사된 두 애니메이션 중 한 조건에 무선 할당되었는데, 졸업생 고시실 조건에는 45명, 여학생 휴게실 조건에는 50명이 할당되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할당된 조건의 애니메이션을 감상한 후, 애니메이션 속 갈등의 현실성, 갈등의 심각성 수준을 5점 척도(1점=매우 있을 법하지 않다/매우 갈등 상황 같지 않다, 5점=매우 있을 법하다/매우 갈등 상황 같다)로 응답하였다.

예비연구 2의 결과, 연구 참가자들은 두 애니메이션의 갈등의 현실성을 비슷한 수준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 고시실 애니메이션은 평균 3.89($SD=1.15$)점, 여학생 휴게실 애니메이션은 평균 4.26($SD=1.16$)점이었으며, 두 애니메이션 간 갈등의 현실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t(93)=1.56$, $p=.121$. 다음으로, 애니메이션 간 갈등의 심각성 비교 결과, 졸업생 고시실 애니메이션은 평균 4.02($SD=0.69$)점, 여학생 휴게실 애니메이션은 평균 4.14($SD=0.78$)점이었으며, 두 애니메이션 간 갈등의 심각성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t(93)=0.77$, $p=.441$. 더불어, 더불어, 연구 참가자의 성별에 따른 애니메이션 속 갈등의 현실성 및 갈등의 심각성 지각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각각 졸업생 고시실 애니메이션의 갈등의 현실성 및 심각성 지각 $t(43)=-0.79$, $p=.435$; $t(43)=-0.61$, $p=.543$; 각각 여학생 휴게실 애니메이션의 갈등의 현실성 및 갈등의 심각성 지각 $t(48)=1.57$, $p=.123$; $t(48)=0.33$, $p=.741$.

종합하자면, 두 개의 예비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애니

메이션)가 갈등의 현실성, 갈등의 심각성 수준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점검할 수 있었다.

2. 본 연구

본 연구에서는 성별 갈등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별 갈등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이성 집단을 비인간화하는 태도가 나타난다면, 개인의 성별 집단자존감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1) 연구 참가자

4년제 대학의 남녀 학부생 134명(남성 68명, 여성 66명), 20대 연령의 대학 남녀 졸업생 128명(남성 60명, 여성 68명)이 연구에 참가하였다³⁾. 여러 대학의 인터넷 커뮤니티,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사이트 및 SNS 등에 연구 참가자 모집 광고를 게재하였으며, 연구 질문지 링크에 접속한 이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한 페이지를 제시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만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연령 범위는 만 18세에서 29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23.96세였다

3)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2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으로 계산하여 표본을 산출한 결과 최소 128명의 연구 참가자가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와 탈락을 10%를 고려하고, 2(갈등 유형: 성별 갈등 vs. 기타 갈등)x2(연구 참가자의 성별: 남성 vs. 여성)x2(연구 참가자의 재학 여부: 대학교 재학 vs. 대학교 졸업)의 실험 조건을 고려하여 약 24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며, 실제로 271명의 연구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절차를 모두 완료한 271명의 연구 참가자들 중에서 연구 참가 시간이 전체 참가자들의 응답 시간 평균에서 3 표준편차 이상 차이가 나는 참가자 9명의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SD=2.66$). 실험 조건인 여학생 휴게실 조건에는 남성 학부 재학생 35명, 여성 학부 재학생 36명, 남성 대학 졸업생 34명, 여성 대학 졸업생 34명 등 총 139명이 참가하였다. 통제 조건인 졸업생 고시실 조건에는 남성 학부 재학생 33명, 여성 학부 재학생 30명, 남성 대학 졸업생 26명, 여성 대학 졸업생 34명 등 총 123명이 참가하였다. 본 연구에는 대략 15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연구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연구 참여 사례로 현금 3천원에 해당하는 기프티콘을 지급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이 연구의 목적이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설명문은 자료수집이 완료된 후에 이메일로 별도 발송하였다.

2) 측정도구

사전 연구를 통하여 갈등의 현실성과 심각성 수준이 비슷하게 통제된 두 개의 갈등 상황을 묘사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였다. 실험 조건에서는 성별 갈등 상황인 여학생 휴게실 설치를 둘러싼 남학생-여학생 간 갈등이 묘사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였다. 통제 조건에서는 갈등의 주체는 다르되 성별 갈등과 내용적으로 유사한 갈등 상황인 졸업생 고시실 설치를 둘러싼 재학생-졸업생 간 갈등이 묘사된 애니메이션을 제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실험 조건과 통제 조건에 무선 할당되었다.

(1) 애니메이션

예비연구 1, 2를 통해 시나리오 속 갈등의 현실성 및 심각성 수준을 조절하고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였다. 실험 조건의 연구 참가자에게 제시한 여학생 휴게실 애니메이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 통제 조건의 연

구 참가자에게 제시한 졸업생 고시실 애니메이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2). 연구 참가자는 제시되는 애니메이션을 감상한 후, 각 집단의 입장에 얼마나 공감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5점=매우 그렇다/매우 공감한다)상에서 평정하고, 어느 쪽 입장을 더 지지하는지를 선택하였다. 또한 애니메이션에 묘사된 갈등의 현실성과 갈등의 심각성 수준, 해당 문제가 두 집단의 의견이 상충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1점=매우 있을 법하지 않다/매우 갈등상황 같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있을 법하다/매우 갈등상황 같다/전혀 그렇다)상에서 평정하였다.

표 1. 여학생 휴게실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귀하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는 최근 여학생 휴게실 설치와 관련하여 논쟁이 뜨겁습니다. 몇 달 전, 학교에서는 학생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여학생을 위한 휴게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학교는 “학생 휴게 공간이 있지만, 여학생들은 성적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월경과 같은 신체적 특성 상 남학생에 비해 학내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여학생을 위한 휴게 공간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치 이유를 밝혔지만, 학생들 간의 논쟁으로 인해 해당 사업은 보류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대체로 성별에 따라 남학생들은 반대하는 입장, 여학생들은 찬성하는 입장으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남학생들은 ‘전체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여학생들만을 위한 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반대한 반면, 여학생들은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학교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학생 휴게실은 필요하다.’며 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은 오프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교 커뮤니티로까지 확대되는 등 아직까지도 학내에서 뜨거운 화제입니다.

다음은 일부 학생들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남학생(23): “아무래도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과방에서 자거나 쉬는 게 불편할 것 같긴 해요. 그런 점에서 여학생 휴게실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학교에 여학생만을 위한 공간이 있다면 당연히 남학생만을 위한 공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전체 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여학생만을 위한 휴게실을 만드는 건 솔직히 역차별인 것 같아요.”

여학생(23): “솔직히 학생 회관이나 과방 등 학교에 휴게 공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잠을 자거나 편하게 쉬기는 어렵죠. 안전 문제도 신경 쓰이고요. 여학생 휴게실이 생기면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쉴 수 있으니까 휴게실을 만들면 좋겠어요.”

표 2. 졸업생 고시실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귀하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는 최근 졸업생 고시실 설치와 관련하여 논쟁이 뜨겁습니다. 몇 달 전, 학교에서는 학생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졸업생을 위한 고시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학교는 “졸업생들이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 등으로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졸업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만약 졸업생들이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에 성공한다면, 학교의 위상도 올라갈 것이므로 학교에서는 졸업생들에게 투자를 하고자 한다.”라고 설치 이유를 밝혔지만, 학생들 간의 논쟁으로 인해 해당 사업은 보류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대체로 졸업 여부에 따라 재학생들은 반대하는 입장, 졸업생들은 찬성하는 입장으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재학생들은 ‘재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졸업생들만을 위한 고시실을 설치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반대한 반면, 졸업생들은 ‘졸업생들은 재학생들보다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

에 졸업생 고시실은 필요하다.’며 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 간에 벌어진 논쟁은 오프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교 커뮤니티로까지 확대되는 등 아직까지도 학내에서 뜨거운 화제입니다.

다음은 일부 학생들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재학생(22): “아무래도 졸업생들은 재학생들보다 공부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이 부족할 것 같긴 해요. 그런 점에서 졸업생 고시실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학교에는 당연히 재학생을 위한 공간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재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더 이상 등록금을 내지 않는 졸업생만을 위한 고시실을 만드는 건 솔직히 역차별인 것 같아요.”

졸업생(26): “솔직히 교내 카페나 빈 강의실 등 학교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도서관과 같이 공부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에는 재학생들 출입이 우선시되다 보니 졸업생들이 편하게 공부하기는 어렵죠. 졸업생 고시실이 생기면 재학생들 눈치를 보지 않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 고시실을 만들면 좋겠어요.”

(2) 비인간화 척도

Loughnan, Haslam과 Kashima(2009)가 사용한 비인간화 척도를 활용하였다. 비인간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외현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측정하는 방법과 비유를 기반으로 측정하는 방법(Loughnan, Haslam, & Kashima, 2009) 두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Loughnan과 동료들이 사용한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하였다. Loughnan과 동료들은 인간이라면 필수적으로 보유하는 본성 10개(‘신경이 과민한’, ‘사람을 잘 믿는’, ‘사교적인’, ‘참을성이 없는’, ‘친근한’, ‘재미있는 것을 좋아하는’, ‘호기심이 많은’, ‘공격적인’, ‘산만해지기 쉬운’, ‘질투심이 있는’)와 인간을 동물과 구별해주는 인간의 독특한 본성 10개

‘겸손한’, ‘마음이 넓은’, ‘인색한’, ‘알뜰한’, ‘보수적인’, ‘냉정한’, ‘무정한’, ‘철두철미한’, ‘체계적인’, ‘예의 바른’) 등 인간의 특성 총 20개를 제시하고, 특정 집단이 제시된 특성들을 얼마나 전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6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6점=매우 그렇다)로 표시하는 문항들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Loughnan과 동료들이 사용한 척도는 제시된 집단을 연구 참가자들이 자신과 동등한 인간으로 지각하는지 혹은 동등한 인간으로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지(비인간화)를 측정하며,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0.89였다. 본 연구에서는 Loughnan과 동료들이 구성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3) 성별 집단자존감 척도

Luhtanen과 Crocker(1990)가 개발하고, 김혜숙(1993)이 한국형으로 만들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 집단자아존중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혜숙은 한국 집단자아존중 척도를 제작하기 위해 연구를 두 번 실시하였는데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0.86, 0.81이었다(김혜숙, 1993). 한국 집단자아존중 척도는 멤버십, 사적, 공적, 정체적 집단자아존중 등 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이 어떠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만족하며 자부심을 가지는지, 다른 사람들이 소속 집단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각, 소속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개인의 정체감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지 등을 측정한다. 총 14개 문항(예: ‘다른 사람들은 내가 속한 성별 집단이 무능한 사회 집단이라고 본다.’, ‘나는 내가 속한 성별 집단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낀다.’ 등)이며 6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6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범주 중에서 성이라는 사회적 범주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이 척도의 문항에서 ‘사회 집단’이라는 표현을 ‘성별 집단’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4) 인구통계학적 특성 질문지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참가자 본인의 성별, 나이, 전공, 학년, 부모의 최종학력과 월평균 가계 소득, 부모와 본인의 출신지(가장 오랫동안 거주하였던 지역)를 측정하였다.

3) 연구 설계 및 절차

온라인 광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실험 참가를 신청한 연구 참가자들에 한 해 온라인 상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커버스토리를 포함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이 명시된 질문지의 첫 페이지를 읽고,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이에 동의할 경우 연구 참가 동의서에 서명하고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갈등 상황이 묘사된 애니메이션을 감상하고 갈등 상황을 조작 점검하는 문항에 응답하는 첫 번째 단계와 애니메이션 속에서 갈등을 빚었던 두 집단을 포함한 여러 사회 집단들을 비인간화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 성별 집단자존감 척도 및 인구통계학적 질문으로 구성된 질문지에 응답하는 두 번째 단계로 구성되었다. 이상의 두 단계는 서로 다른 연구자들이 진행하는 별개의 연구로 연구 참가자들에게 소개되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단계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에 대한 조사’로, 두 번째 단계는 ‘한국사회의 여러 사회 집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조사’로 설명되었다. 연구 참가자는 실험 조건과 통제 조건 중 한 조건에 무선 할당되어 애니메이션을 감상하고 조작 점검 문항에 응답한 후, 여러 사회집단에 대한 비인간화 척도, 성별 집단 자존감 척도, 인구통계학적 질문 순으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연구 참가에는 평균

적으로 15분이 소요되었다. 모든 절차를 마친 연구 참가자들에게는 현금 3천원에 해당하는 기프티콘을 참여 사례로 지급하고, 연구의 목적에 대해 사후 설명하였다.

4) 분석 방법

먼저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가설 1(‘성별 갈등 상황을 접한 사람들은 이성 집단을 비인간화할 것이다.’)을 검증하기 위해 2 (갈등 유형: 성별 갈등 vs. 기타 갈등) × 2 (연구 참가자와 대상집단의 성별 일치 여부: 동성 vs. 이성) 혼합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성별 갈등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이 통제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보다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지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연구가설 2-1(‘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보다 성별 갈등 상황에서 이성 집단을 더욱 비인간화할 것이다.’)을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갈등 유형과 성별 집단자존감이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를 설명하는 변수인지 알아보았다. 그런 후, 연구가설 2-2(‘고 지위 집단인 남성들은 성별 집단자존감이 낮을수록 이성 집단을 더 비인간화하지만, 저 지위 집단인 여성들은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에 따라 이성 집단을 비인간화하는 정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성별 집단자존감과 연구 참가자의 성별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회귀분석에서 애니메이션 속 갈등 상황의 현실성, 갈등 수준의 심각성, 그리고 의견 상충 정도를 묻는 세 문항은 공변인으로 통제하였다.

3. 연구 결과

1) 비인간화 척도 및 성별 집단자존감 척도의 신뢰도

본 연구의 분석에 앞서 비인간화 척도와 성별 집단자존감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비인간화 척도는 인간의 필수적 본성(HN) 10개 문항과 인간의 독특성(HU)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필수적인 본성과 인간의 독특성은 서로 구별되는 차원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두 차원의 문항을 분리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각 집단 별 비인간화 척도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인간의 필수적 본성(HN), 인간의 독특성(HU)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직장인 집단에서는 .47, .52, 학부 재학생 집단에서는 .65, .58, 남성 집단에서는 .69, .52, 대학 졸업생 집단에서는 .51, .53, 여성 집단에서는 .58, .58, 중산층 집단에서는 .53, .58이었다. 선행연구에서 내적합치도가 .89였던 것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 비인간화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 집단자존감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0이었다. 선행연구(김혜숙, 1993)의 집단자아존중감 내적합치도가 .86, .81이었음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성별이라는 사회 범주에 맞춰 수정한 성별 집단자존감 척도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2) 조건 간 갈등상황에 대한 연구 참가자들의 지각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제시된 갈등 유형이 의도대로 연구 참가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실험조건의 성별 갈등(여학생 휴게실)과 통제조건의 기타 갈등(졸업생 고시실)은 갈등이 성별과의 관련성 여부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적으로는 최대한 유사하게 구성하였다. 이는 갈등 상황의 현실성 및 심각성 수준의 차이가 연구 참가자들의 응답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예비연구 1과 2를 통해 두 갈등 상황을 연구 참가자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도 다음의 두 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건 간 애니메이션 속 갈등 상황의 현실성, 갈등의 심각성 수준, 그리고 묘사된 문제가 학생들 간 의견이 상충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구 참가자들의 응답을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예비연구 1, 2에서 측정된 갈등의 현실성 및 갈등의 심각성 수준을 묻는 문항을 사용해 조건 간 갈등에 대한 연구 참가자들의 지각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예비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애니메이션 속 문제가 학생들 간에 의견이 상충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아래에 제시된 표 3에서 표 5에 조건 간 갈등상황에 대한 연구 참가자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의 현실성과 관련하여, 여학생 휴게실은 평균 4.50점($SD=0.99$), 졸업생 고시실은 평균 4.13점($SD=0.97$)으로, 여학생 휴게실 애니메이션이 유의미하게 더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지각되었다, $t(260)=3.03$, $p<.01$. 애니메이션의 갈등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여학생 휴게실은 평균 4.12점($SD=0.65$), 졸업생 고시실은 평균 3.72점($SD=0.87$)으로, 여학생 휴게실 애니메이션이 유의미하게 더 심각한 갈등 상황이라고 지각되었다, $t(224.18)=4.23$, $p<.001$. 학생들 간 의견 상충과 관련하여, 여학생 휴게실은 평균 3.78점($SD=1.11$), 졸업생 고시실은 평균 4.02점($SD=0.85$)으로, 졸업생 고시실 애니메이션이 보다 학생들 간 의견이 상충하는 상황이라고 지각되었다, $t(254.89)=-1.97$, $p=.05$. 예비연구 1, 2에서 점검한 것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조건 간 애니메이션의 갈등의 현실성, 갈등의 심각성 수준에 대한 연구 참가자들의 지각이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타났다. 덧붙여, 애니메이션 속 문제에 대한 학생들 간 의견

상층에 대한 응답 역시 차이가 나타났다.

표 3. 조건 간 애니메이션의 현실성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여학생 휴게실 애니메이션	졸업생 고시실 애니메이션
평균	4.50	4.13
표준편차	0.99	0.97
사례 수	139	123
<i>t</i>		3.03
유의확률		<.01

표 4. 조건 간 애니메이션의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여학생 휴게실 애니메이션	졸업생 고시실 애니메이션
평균	4.12	3.72
표준편차	0.65	0.87
사례 수	139	123
<i>t</i>		4.23
유의확률		<.001

표 5. 조건 간 애니메이션 속 문제 의견상층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여학생 휴게실 애니메이션	졸업생 고시실 애니메이션
평균	3.78	4.02
표준편차	1.11	0.85
사례 수	139	123
<i>t</i>		-1.97
유의확률		.05

다음으로, 연구 참가자들이 갈등 상황 속 두 집단 중에서 내집단에 더 공감하는지를 대응표본 *t*검증과 카이스퀘어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아래에 제시된 표 6에서 표8에 여학생 휴게실 조건에서 연구 참가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구체적으로, 남자 연구 참가자들의 경우, 남학생 입장에 대한 공감 점수의 평균이 4.03점($SD=1.06$), 여학생 입장에 대한 공감 점수의 평균은 3.26점($SD=1.22$)으로, 내집단인 동성 집단의 입장에 보다 공감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t(68)=3.50, p<.01$. 여자 연구 참가자들의 경우, 남학생 입장에 대한 공감 점수의 평균이 3.51점($SD=1.20$), 여학생 입장

에 대한 공감 점수의 평균은 4.44점($SD=0.61$)으로, 마찬가지로 내집단인 동성 집단의 입장에 보다 공감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t(69)=-5.33$, $p<.001$. 갈등 상황 속 두 집단 중에서 더 공감하는 입장을 선택하게 하였을 때, 남자 연구 참가자들은 남학생 입장을, 여자 연구 참가자들은 여학생 입장을 더 많이 선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더 공감하는 입장 선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1) = 27.16$, $p<.001$.

표 6. 남자 참가자의 남학생, 여학생 입장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남학생 입장 공감	여학생 입장 공감
평균	4.03	3.26
표준편차	1.06	1.22
사례 수	69	69
t	3.50	
유의확률	<.01	

표 7. 여자 참가자의 남학생, 여학생 입장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남학생 입장 공감	여학생 입장 공감
평균	3.51	4.44
표준편차	1.20	0.61
사례 수	70	70
t	-5.33	
유의확률	<.001	

표 8. 보다 공감하는 입장 선택에 대한 성별 차이

	단위: 명(%)		
	남자 참가자	여자 참가자	전체
남학생 입장에 더 공감	45 (65.2)	15 (21.4)	60 (43.2)
여학생 입장에 더 공감	24 (34.8)	55 (78.6)	79 (56.8)
전체	69 (100)	70 (100)	139 (100)

$$\chi^2 = 27.16 \text{ (df=1, } p<.001)$$

아래에 제시된 표 9에서 표11에 졸업생 고시실 조건에서 연구 참가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재학생 연구 참가자들의 경우, 재학생 입장에 대한 공감 점수의 평균이 3.83점($SD=0.79$), 졸업생 입장에 대한 공감 점수의 평균은 3.27점($SD=0.90$)으로, 내집단인 재학생 집단의 입장에 보다 공감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t(62)=3.23$, $p<.01$. 졸업생 연구 참가자들의 경우, 재학생 입장에 대한 공감 점수의 평균이 3.72점($SD=1.03$), 졸업생 입장에 대한 공감 점수의 평균은 3.95점($SD=0.98$)으로, 내집단인 졸업생 집단과 외집단인 재학생 집단의 입장 공감 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t(59)=-1.31$, $p=.20$. 그렇지만 갈등 상황 속 두 집단 중에서 더 공감하는 입장을 선택하게 하였을 때, 재학생 연구 참가자들은 재학생 입장을, 졸업생 연구 참가자들은 졸업생 입장을 더 많이 선택하였으며, 재학 여부에 따라 더 공감하는 입장 선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1) = 8.98$, $p<.01$.

표 9. 재학생 참가자의 재학생, 졸업생 입장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 결과

	재학생 입장 공감	졸업생 입장 공감
평균	3.83	3.27
표준편차	0.79	0.90
사례 수	63	63
<i>t</i>		3.23
유의확률		<.01

표 10. 졸업생 참가자의 재학생, 졸업생 입장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 결과

	재학생 입장 공감	졸업생 입장 공감
평균	3.72	3.95
표준편차	1.03	0.98
사례 수	60	60
<i>t</i>		-1.31
유의확률		.20

표 11. 보다 공감하는 입장 선택에 대한 재학 여부 차이 단위: 명(%)

	재학생 참가자	졸업생 참가자	전체
재학생 입장에 더 공감	38 (60.3)	20 (33.3)	58 (47.2)
졸업생 입장에 더 공감	25 (39.7)	40 (66.7)	65 (52.8)
전체	63 (100)	60 (100)	123 (100)

$\chi^2 = 8.98$ (df=1, $p < .01$)

종합하자면, 예비연구 1, 2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조건 간 애니메이션으로 제시된 갈등 상황의 현실성 및 심각성 수준, 해당 문제에 대한 학생들 간의 의견 상충 정도에 대한 연구 참가자들의 지각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렇지만 두 조건에서 연구 참가자들이 대체적으로 내집단에 더 많이 공감하는 경향을 보였다.

3) 갈등 유형, 이성 집단 비인간화(HN, HU), 성별 집단자존감, 성별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예측변수인 갈등 유형, 결과변수인 이성 집단 비인간화(HN, HU), 일차조절변수인 성별 집단자존감, 이차조절변수인 성별 간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 성별 집단자존감과 이성 집단 비인간화(HN)을 제외하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관찰할 수 없었다(표 12). 이성 집단 비인간화 HN와 성별 집단자존감은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상관의 크기는 작은 편으로 나타났다($r = .12$, $p < .05$). 이를 통해 성별 집단자존감이 높으면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HN) 점수가 높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앞서 측정도구 부분에서 기술하였듯이 비인간화 특질 척도는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

본성을 많이 부여했다는 의미이다. 즉 두 변수 간 정적 상관은 성별 집단자존감이 높을수록 인간의 필수적 본성 차원에서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를 덜한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갈등 유형과 이성 집단 비인간화 HN, 이성 집단 비인간화 HU, 성별 집단자존감, 성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r=.05$, $r=.09$, $r=.01$, $r=.02$, all *n.s.*). 이성 집단 비인간화 HN와 이성 집단 비인간화 HU, 성별 또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r=.07$, $r=-.04$, all *n.s.*). 이성 집단 비인간화 HU와 성별 집단자존감, 성별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관찰할 수 없었다($r=-.04$, $r=.03$, all *n.s.*). 마지막으로 성별 집단자존감과 성별 간 상관계수도 유의미하지 않았다($r=.06$, *n.s.*).

표 12. 주요 변수 간 상관 ($N=262$)

	1	2	3	4	5
1. 갈등 유형	-				
2. 이성집단 비인간화(HN)	0.05	-			
3. 이성집단 비인간화(HU)	0.09	0.07	-		
4. 성별 집단자존감	0.01	0.12*	-0.04	-	
5. 성별	0.02	-0.04	0.03	0.06	-

$p<.05$.

4) 갈등 유형에 따른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 점수의 차이

조건 간 갈등 유형에 따라 연구 참가자들이 이성 집단을 비인간화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 갈등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이 기타 갈등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를 더 강하게 하였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인간화 척도는 인간의 필수적인 본성 차원과 인간의 독특성 차원에서 각각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특질 10개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비인간화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집단에 인간의 필수적인 본성과 인간의 독특성을 높게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비인간화 척도의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 집

단에 인간의 필수적인 본성과 인간의 독특성을 덜 부여하는 것, 해당 집단을 비인간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건에 따라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 수준이 달라지는지, 즉 성별 갈등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이 기타 갈등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보다 이성 집단에 대해 비인간화를 많이 했는지(즉, 비인간화 척도 점수가 낮은지) 검증하였다. 비인간화 척도를 포함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기술통계 값은 표 13과 같다.

표 13. 주요 척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N=262)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직장인 집단	HN	1.60	5.00	3.59	0.47
	HU	2.10	5.00	3.79	0.47
학부재학생 집단	HN	1.40	5.50	4.15	0.52
	HU	2.00	4.90	3.23	0.47
남성 집단	HN	2.00	5.60	3.99	0.59
	HU	1.90	4.70	3.45	0.47
대학졸업생 집단	HN	2.20	5.00	3.52	0.47
	HU	2.40	5.00	3.68	0.44
여성 집단	HN	2.80	5.70	4.06	0.48
	HU	2.10	4.90	3.56	0.51
중산층 집단	HN	2.10	4.90	3.55	0.45
	HU	2.30	5.30	3.66	0.46
성별 집단자준감		2.36	6.00	4.20	0.64

비인간화 점수를 인간의 필수적 본성(HN)과 인간의 독특성(HU)으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비인간화 척도가 각각 인간의 필수적 본성 및 인간의 독특성과 관련이 높은 10개 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행연구들(Haslasm, Bain, Douge, Lee, & Bastian, 2005)에 따르면 인간성의 두 차원은 독립적인 차원이므로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는 표 14에서 표 17, 그림 2와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조건 간 갈등 유형에 따라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 (갈등 유형: 성별 갈등 vs. 기타 갈등) × 2 (연구 참가자와 대상집단의 성별 일치 여부: 동성 vs. 이성) 혼합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간

의 필수적 본성에서 F 통계값은 .75, 유의확률은 .39로, 갈등 유형에 따른 이성 집단에 대한 인간의 필수적 본성 평정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간의 독특성에서 F 통계값은 2.12, 유의확률은 .15로, 갈등 유형에 따른 이성 집단에 대한 인간의 독특성 평정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애니메이션 속 갈등 상황의 현실성, 심각성, 그리고 의견 상충 정도를 점검하는 세 문항을 공변인으로 통제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인간의 필수적 본성에서 F 통계값은 0.08, 유의확률은 .79, 인간의 독특성에서 F 통계값은 1.42, 유의확률은 .23으로 갈등 유형에 따른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인간성 평정)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하자면,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성별 갈등 조건과 기타 갈등 조건 간에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성별 갈등이 다른 유형의 갈등보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를 강하게 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14. 갈등 유형에 따른 성별 집단 별 HN 점수 차이에 대한 기술통계

	성별 갈등(여학생 휴게실)		기타 갈등(졸업생 고시실)	
	동성집단 HN	이성집단 HN	동성집단 HN	이성집단 HN
평균	4.00	4.09	3.96	4.03
표준편차	0.53	0.54	0.54	0.55
사례 수	139		123	

표 15. 갈등 유형에 따른 성별 집단 별 HN 점수에 대한 혼합변량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피험자 간					
갈등 유형	.27	1	.27	.75	.39
오차	92.53	260	.36		
피험자 내					
대상집단 성별	.80	1	.80	3.59	.06
대상집단 성별	.01	1	.01	.04	.84
*갈등 유형					
오차	58.26	260	.22		
전체	151.87	523			

주 1. 대상집단 성별은 연구 참가자와 대상집단의 성별 일치 여부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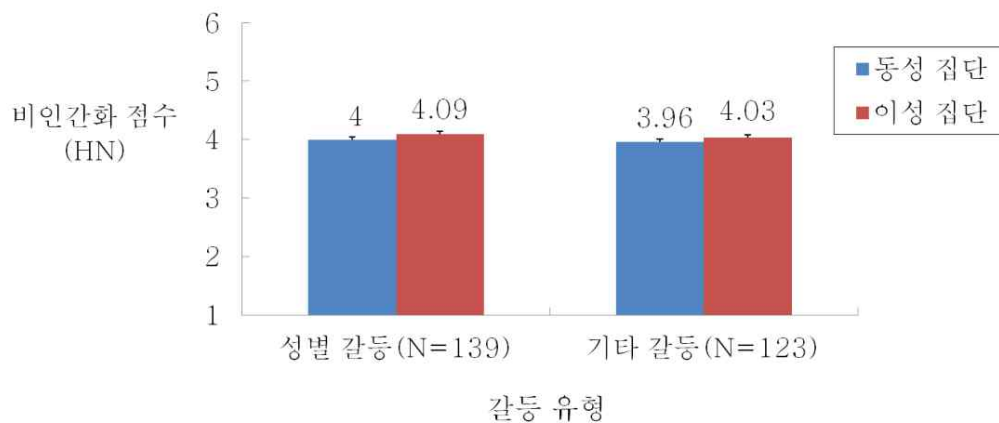


그림 2. 갈등 유형에 따른 성별 집단 별 비인간화 점수(HN) 차이

표 16. 갈등 유형에 따른 성별 집단 별 HU 점수 차이에 대한 기술통계

	성별 갈등(여학생 휴게실)		기타 갈등(졸업생 고시실)	
	동성집단 HU	이성집단 HU	동성집단 HU	이성집단 HU
평균	3.60	3.48	3.56	3.38
표준편차	0.48	0.52	0.42	0.52
사례 수	139		123	

표 17. 갈등 유형에 따른 성별 집단 별 HU 점수에 대한 혼합변량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피험자 간					
갈등 유형	.671	1	.671	2.12	.15
오차	82.29	260	.32		
피험자 내					
대상집단 성별	3.00	1	3.00	18.99	<.001
대상집단 성별	.08	1	.08	.48	.49
*갈등 유형					
오차	40.99	260	.19		
전체	127.03	523			

주 1. 대상집단 성별은 연구 참가자와 대상집단의 성별 일치 여부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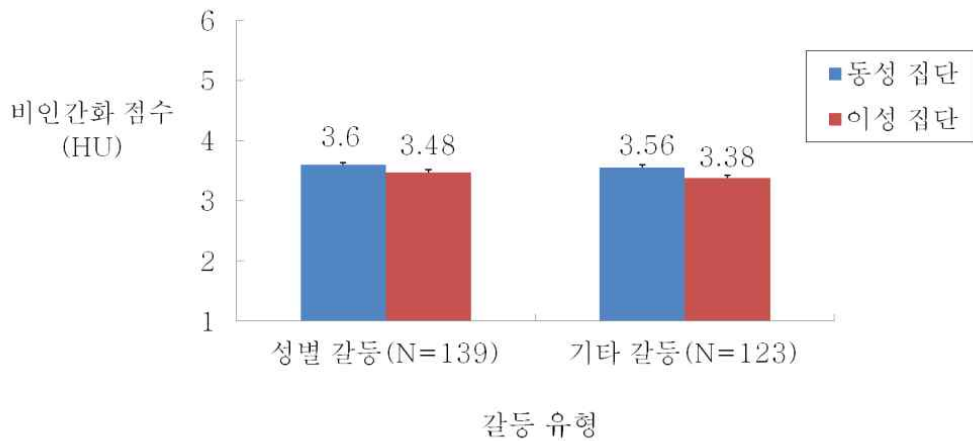


그림 3. 갈등 유형에 따른 성별 집단 별 비인간화 점수(HU) 차이

5) 성별 갈등과 이성 집단 비인간화의 관계에서 성별 집단자존감과 성별의 조절효과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성별 갈등 상황을 접한 사람들이 이성 집단을 비인간화하는 정도가 성별 집단자존감에 조절되는지(가설 2-1), 그리고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성별 집단자존감의 영향이 연구 참가자의 성별에 조절되는지(가설 2-2) 여부였다. 그렇지만 앞서 조건 간 갈등 유형에 따라 이성 집단 비인간화의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을 때, 갈등 유형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예측변수인 성별 갈등이 결과변수인 이성 집단 비인간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차조절변수 성별 집단자존감과 이차조절변수 성별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가설 2-1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때, 갈등 유형과 연구 참가자의 성별은 이분변수이므로 더미변수로 코딩하여 투입하였다. 구체적으로, 갈등 유형 변수에서 기타 갈등을 0, 성별 갈등을 1로 코딩하였으며 성별 변수에서 여성을 0, 남성을 1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를 만들었다. 예비연구 1, 2에서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조건 별 애니메이션의 갈등 상황의 현실성, 심각성 수준, 그리고 의견 상충 정도에 대한 연구 참가자들의 지각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이상의 세 문항을 공변인으로 통제하였다.

결과변수인 이성 집단 비인간화를 인간의 필수적 본성과 인간의 독특성으로 분리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갈등 유형과 성별 집단자존감을 포함한 회귀 모형은 인간의 필수적 본성 차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2=0.04$, $F(5,256)=2.32$, $p<.05$). 분석 결과는 표 18과 19에 제시하였다. 각 변수들이 결과 변수인 이성 집단 비인간화를 유의하게 설명하는지 살펴보

면, 갈등 유형은 이성 집단 비인간화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지만 ($b=-.01$, $se=.07$, $p=.89$) 성별 집단자존감은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10$, $se=.05$, $p<.05$). 구체적으로, 성별 집단자존감을 통제하였을 때 갈등 유형은 이성 집단 비인간화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지만, 갈등 유형을 통제하였을 때 성별 집단자존감의 1단위 증가는 이성 집단 비인간화를 0.104 단위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 집단자존감이 높으면 인간의 필수적 본성 차원에서 이성 집단에 인간성을 더 부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성 집단 비인간화 변화량의 약 4.3%는 성별 집단자존감의 변화량에 의해 설명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이성 집단 비인간화(HN)를 예측하는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표 (N=262)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3.34	5	.67	2.32	<.05
잔차	73.61	256	.29		
합계	76.94	261			
$R^2(\text{adj. } R^2)=.04(.03)$					

표 19. 이성 집단 비인간화(HN)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262)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애니메이션 현실성	.05	.04	.09	1.38	.17
애니메이션 심각성	.08	.05	.11	1.60	.11
애니메이션 의견 상충	-.06	.04	-.11	-1.65	.10
갈등 유형 성별	-.01	.07	-.01	-.14	.89
집단자존감 (상수)	.10	.05	.12	1.99	<.05
	3.35	.29		11.46	<.001

주 1. 애니메이션 현실성, 심각성, 의견 상충 세 문항은 통제변수임

다음으로, 이성 집단 비인간화 중에서 인간 독특성 차원을 살펴보면, 갈등 유형과 성별 집단자존감을 포함한 회귀 모형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2=0.01$, $F(5,256)=0.57$, $p=.72$). 분석 결과는 표 20과 21에 제시하였다. 각 변수들이 결과 변수인 이성 집단 비인간화를 유의하게 설명하는지 살펴보면, 갈등 유형과 성별 집단자존감 모두 이성 집단 비인간화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각각 $b=.08$, $se=.07$, $p=.23$; $b=-.03$, $se=.05$, $p=.55$).

표 20. 이성 집단 비인간화(HU)를 예측하는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표 ($N=262$)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79	5	.16	.57	.72
간차	70.49	256	.28		
합계	71.28	261			
$R^2(\text{adj. } R^2)=.01(-.01)$					

표 21. 이성 집단 비인간화(HU)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262$)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애니메이션 현실성	.01	.04	.02	.27	.79
애니메이션 심각성	.01	.05	.02	.28	.78
애니메이션 의견 상충	-.02	.03	-.03	-.46	.65
갈등 유형	.08	.07	.08	1.21	.23
성별	-.03	.05	-.04	-.60	.55
집단자존감 (상수)	3.48	.29		12.19	<.001

주 1. 애니메이션 현실성, 심각성, 의견 상충 세 문항은 통제변수임

종합하자면, 가설 2-1을 완전히 지지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간의 필수적 본성과 인간의 독특성 차원에서 모두 갈등 유형이 이성 집단 비인간화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즉 가설과는 다르게 성별 갈등이 이성 집단 비인간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성별 집단자

존감과 관련하여 가설 2-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가 일부 관찰되었다. 이성 집단 비인간화 중에서 인간의 필수적 본성 차원에서 성별 집단자존감은 이성 집단 비인간화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성별 집단자존감이 높을수록 이성 집단에 대해 인간의 필수적 본성 차원의 인간성을 더 많이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독특성 차원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가설 2-2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2-1 검증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고려하였을 때, 갈등 유형은 이성 집단 비인간화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수가 아니므로 가설 2-2를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인간의 독특성 차원에서는 가설 2-1을 지지하는 어떠한 결과도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가설 2-2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은 이성 집단 비인간화 중에서 인간의 필수적 본성 차원에서만 실시하였다. 즉 가설 2-2를 검증하기 위하여, 통제변수를 애니메이션의 현실성, 심각성 및 의견 상충 정도, 독립변수를 성별 집단자존감, 종속변수를 이성 집단 비인간화(HN), 조절변수를 연구 참가자의 성별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인간의 필수적 본성 차원에서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22와 같다. 성별 집단자존감은 이성 집단 비인간화(HN)에 대해 주효과를 보였지만($\beta = .13$, $p < .05$), 성별은 주효과를 보이지 않았다($\beta = -.04$, $n.s$). 성별 집단자존감과 성별의 상호작용은 이성 집단 비인간화(HN)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 = .18$, $p < .01$). 이는 이성 집단 비인간화(HN)에 성별 집단자존감이 영향을 미치며, 성별 집단자존감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성별 집단자존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성별 집단자존감의 영향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성별 집단자존감 중앙값을 기준으로 중앙값보다 낮은 값을 가진 연구 참가자들은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로, 중앙값보다 높은 값을 가진 연구

참가자들은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이 높은 사람들로 구분하였다. 성별 집단자존감은 1점에서 6점 사이 값이며, 중앙값은 4.21점이다. 총 262명 중 1점부터 4.20점에 해당하는 연구 참가자가 118명, 4.22점부터 6점에 해당하는 연구 참가자가 127명, 중앙값 4.21점에 해당하는 연구 참가자가 17명이다. 중앙값에 해당하는 연구 참가자 17명은 난수표를 사용하여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에 무선 할당하였다. 그 결과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이 낮은 집단은 128명, 높은 집단은 134명이었다. 이와 같이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에 따라 집단을 2개로 구분한 후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3, 그림 4와 같다.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이 낮은 집단의 이성 집단 비인간화(HN) 점수 평균은 3.96점($SD = 0.56$), 높은 집단의 점수 평균은 4.16점($SD = 0.51$)으로,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이성 집단에 대해 인간의 필수적 본성과 관련된 인간성을 덜 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t(260) = 2.91, p < .01$.

성별 집단자존감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조절변수인 성별에 따라 집단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한 후, 애니메이션의 현실성, 갈등의 심각성, 의견 상충 세 문항을 통제변수로 하는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24, 그림 5와 같다. 구체적으로, 성별 집단자존감이 이성 집단 비인간화(HN)에 미치는 효과는 남녀 연구 참가자 간에 차이가 있었다($b = 0.24, se = 0.11, t(6,255) = 2.29, p < .05$). 남자 연구 참가자 집단은 성별 집단자존감이 1만큼 증가할 경우에 이성 집단 비인간화(HN)가 0.26만큼 증가하였다($b = 0.26, se = 0.07, t(4,123) = 3.53, p < .001$). 즉 남자 연구 참가자들은 성별 집단자존감이 1만큼 증가할 경우에 이성 집단에 대해 인간의 필수적 본성과 관련된 인간성을 0.26만큼 더 부여하였다. 반면, 여자 연구 참가자 집단에서는 성별 집단자존감에 따른 이성 집단 비인간화(HN)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b = 0.01, se = 0.07, t(4,129) = 0.14, p = .889$). 요컨

대, 인간의 필수적 본성 차원에서 이성 집단 비인간화를 살펴보면, 가설 2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들이 관찰되었다. 갈등 유형에 따른 이성 집단 비인간화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이성 집단에 대해 인간의 필수적 본성 차원의 인간성을 덜 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남자 연구 참가자들에게서만 나타났다.

표 22. 성별 집단자존감과 이성 집단 비인간화(HN)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ΔR ²	<i>F</i>
모형 1	애니메이션 현실성	.05	.04	.10	1.47	0.03	0.02	2.52
	애니메이션 심각성	.07	.05	.11	1.63			
	애니메이션 의견상충	-.05	.03	-.10	-1.53			
모형 2	애니메이션 현실성	.05	.04	.09	1.33	0.05	0.03	2.42*
	애니메이션 심각성	.07	.05	.10	1.58			
	애니메이션 의견상충	-.06	.03	-.11	-1.71			
	성별 집단자존감(A)	.11	.05	.13*	2.04			
	성별(B)	-.05	.07	-.04	-.71			
모형 3	애니메이션 현실성	.05	.04	.09	1.37	0.06	0.04	2.92**
	애니메이션 심각성	.07	.05	.09	1.44			
	애니메이션 의견상충	-.06	.03	-.11	-1.76			
	성별 집단자존감(A)	.01	.07	.01	.18			
	성별(B)	-.05	.07	-.05	-.77			
	상호작용(A*B)	.24	.11	.18*	2.29			

주 1. 성별은 연구 참가자의 성별을 의미함

p* < .05, *p* < .01

표 23.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 별 이성 집단 비인간화(HN)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성별 집단자존감 고 집단	성별 집단자존감 저 집단
평균	4.16	3.96
표준편차	0.51	0.56
사례 수	134	128
<i>t</i>	2.91	
유의확률	.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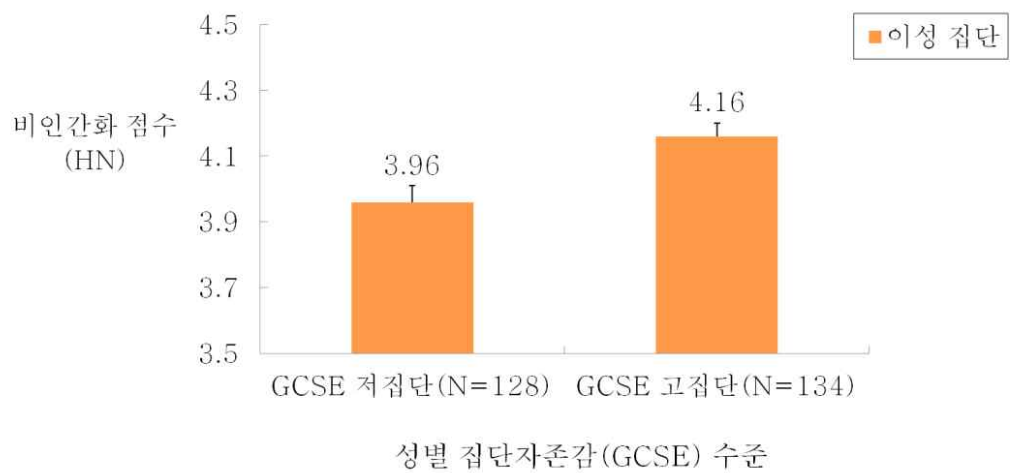


그림 4.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에 따른 이성 집단 비인간화 점수(HN) 차이

표 24. 성별 집단자존감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ΔR^2	<i>F</i>
남성 집단 모형 1	애니메이션 현실성	.05	.05	.09	.91	0.02	-0.00	0.85
	애니메이션 심각성	.05	.06	.08	.74			
	애니메이션 의견상충	-.05	.05	-.10	-1.06			
	애니메이션 현실성	.04	.05	.09	.92			
	애니메이션 심각성	.03	.06	.05	.51			
남성 집단 모형 2	애니메이션 의견상충	-.06	.04	-.12	-1.34	0.11	0.08	3.82**
	성별 집단자존감	.26	.07	.30***	3.53			
	애니메이션 현실성	.06	.05	.10	1.19			
	애니메이션 심각성	.11	.07	.13	1.50			
	애니메이션 의견상충	-.05	.05	-.09	-1.00			
여성 집단 모형 1	애니메이션 현실성	.06	.05	.10	1.17	0.04	0.01	1.24
	애니메이션 심각성	.11	.07	.13	1.50			
	애니메이션 의견상충	-.05	.05	-.09	-1.01			
	애니메이션 현실성	.06	.05	.10	1.17			
	애니메이션 심각성	.11	.07	.13	1.50			
여성 집단 모형 2	애니메이션 의견상충	-.05	.05	-.09	-1.01	0.04	0.01	1.24
	성별 집단자존감	.01	.07	.01	.14			
	애니메이션 현실성	.06	.05	.10	1.17			
	애니메이션 심각성	.11	.07	.13	1.50			
	애니메이션 의견상충	-.05	.05	-.09	-1.01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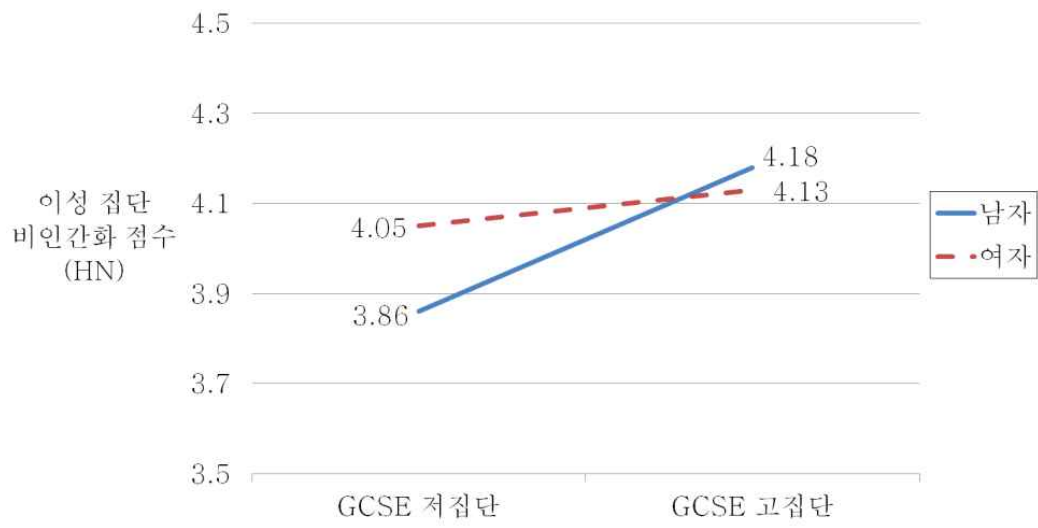


그림 5. 성별 집단자존감(GCSE)과 이성 집단 비인간화(HN)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종합하자면, 본 연구에서 성별 갈등 조건과 기타 갈등 조건을 비교하였을 때 갈등 유형에 따른 이성 집단 비인간화 정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처럼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 2와 완전히 일치하는 결과 또한 관찰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가설 2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들이 일부 관찰되었다. 먼저, 이성 집단 비인간화 중 인간의 필수적 본성 차원에서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 비하여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이성 집단에 대해 인간의 필수적 본성 차원의 인간성을 상대적으로 더 적게 부여(기계적 비인간화)하였다. 이러한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에 따른 이성 집단 비인간화(HN)의 차이는 남자 연구 참가자들에게서만 관찰되었다. 남자 연구 참가자들은 성별 집단자존감이 낮으면 이성 집단에 대해 인간의 필수적 본성 차원의 인간성을 덜 부여하였으나, 여자 연구 참가자들에게서는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에 따른 이성 집단 비인간화(HN)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독특성 차원에서의 이성 집단 비인간화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요컨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성별 갈등 상황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성 집단에 대해 더 비인간화를 하도록 만들지는 않았지만,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은 인간의 필수적 본성 차원에서 이성 집단 비인간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차이는 남자 연구 참가자들만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종합 논의

본 연구의 주요한 관심은 성별 갈등이 사람들로 하여금 외집단인 이성 집단을 비인간화하게 만드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또한 개인의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이 위의 두 변수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고, 이러한 영향이 개인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비추어 본 연구의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건 간 다르게 제시된 갈등 유형과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 점수 사이에 관련성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성별 갈등 상황을 접한 연구 참가자들과 다른 갈등 상황을 접한 연구 참가자들이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 척도 상에서 평정한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성별 갈등이 외집단인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성별 갈등과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의 관계를 성별 집단자존감이 조절하는 효과가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성별 집단자존감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이 높은 사람들보다 이성 집단 비인간화(HN) 점수가 더 낮았다. 이 결과는 갈등 유형과 무관하게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이성 집단에 대해 인간의 필수적 본성 차원의 인간성을 덜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갈등 유형의 실험 조작이 효과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성별 집단자존감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개인의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로 볼 수는 없다.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에

비하여 이성 집단을 인간의 필수적 본성 차원에서 더 비인간화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에 따른 이성 집단 비인간화의 차이는 인간의 독특성 차원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셋째, 위에서 기술한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에 따른 인간의 필수적 본성에서의 평정 차이는 남자 연구 참가자들에게서만 나타났다. 남자 연구 참가자들은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에 따라 이성 집단에 대한 인간의 필수적 본성 평정을 달리 하였지만, 여자 연구 참가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성별 갈등과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 사이의 관련성과 두 변수의 관계를 성별 집단자존감과 성별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가설이 완전히 지지되지는 않았지만, 남자 연구 참가자들에게서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에 따른 이성 집단 비인간화(HN)의 차이가 나타나는 등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가설 1이 지지되지 않았으며 가설 2가 부분적으로 지지되는 등 예상과는 다른 결과들이 나타났다. 먼저, 갈등 유형에 따라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실험 조작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실험 조작이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조작이, 연구 참가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성별 갈등 상황을 접하였을 때 이성 집단에 대해 경험하는 정서나 사고 등의 심리적 과정을 재현하게끔 만드는 데 부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애니메이션에 묘사된 갈등 상황의 현실성, 심각성 수준, 의견 상충 정도를 점검한 세 문항을 통해 조건 간 갈등이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연구 참가자들이 애니메이션 속 상황을 현실적인 갈등 상황으로 지각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실험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이 성별 갈등 상황을 현실적인 갈등 상황으로 지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집단인 이성 집단을 더욱 비인

간화지 않은 것은 실제 성별 갈등 상황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과정을 실험 상황에서 재현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조작은 성별 집단 간 갈등 상황으로 지각은 되지만, 현실세계에서의 성별 갈등 상황과 같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하였을 수 있다. 둘째, 성별 갈등이 연구 참가자들에게 상시 점화 상태이므로 실험 조작으로 점화시킨 성별 갈등 상황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이성 집단과 갈등하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겪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이성을 비방하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고려하면, 연구 참가자들은 일상적인 상황의 일환으로 성별 갈등을 접하고 있으므로 성별 갈등에 대해 상시 점화된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험 조작이 연구 참가자들에게 성별 갈등 상황을 점화시켜 이성 집단을 더욱 비인간화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에 따른 이성 집단 비인간화 정도의 차이가 인간의 필수적 본성 차원에서 남자 연구 참가자들에게서만 나타난 것이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남자들이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이 낮을수록 이성 집단을 더욱 비인간화한 결과는 가설과 일치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인간의 필수적 본성 차원에서만 나타난 것은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다.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이 낮은 남성들이 이성 집단의 인간성을 부인할 때, 더 핵심적인 인간성을 부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인간의 독특성이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인간성이라면, 인간의 필수적 본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천적으로 가지는 인간성으로, 인류에게 널리 공유된 기본적인 속성이며 인간성의 핵심 속성(core attributes)으로 여겨진다(Haslam, 2006). 이러한 인간성의 두 차원의 특징을 고려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간성(인간의 필수적 본성)을 부인하는 것이 인간의 독특성을 부

인하는 것보다 대상 집단의 인간성을 더욱 폄하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요컨대,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이 낮은 남성들이 성별 집단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집단인 이성 집단을 비인간화할 때, 인간의 필수적 본성을 부인함으로써 이성 집단을 더욱 폄하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않은 비인간화를 다루고, 이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성별 갈등과 연결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비인간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외집단 비인간화, 내집단 인간화, 비인간화의 형태와 발생 맥락 등 여러 각도에서 수행되었다(Haslam, 2006; Haslam & Loughnan, 2014; Vaes, Leyens, Paladino, & Miranda, 2015). 그리고 최근에는 비인간화가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폭력과 갈등 상황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가볍고 미묘한 형태로도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Bastian & Haslam, 2011; Trifiletti, Bernardo, Falvo, & Capozza, 2014; Fasoli, Paladino, Carnaghi, Jetten, Bastian, & Bain, 2016). 또한 타인이나 다른 집단을 비인간화하는 가해자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비인간화를 당하는 피해자의 관점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Bastian & Haslam, 2011). 비인간화의 최근 연구 흐름을 고려하면, 비인간화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사회적 문제와 연결될 여지가 많은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회를 살아가며 빈번하게 관계를 맺는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는 연구된 바가 적으며, 특히 성별 갈등과 이성 집단 비인간화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는 없다. 한국 사회에서 성별 갈등은 사회적 문제이며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성별 갈등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인지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별 갈등과 비인간화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비록 ‘성별 갈등 상황을 접한 사람들은 다른 유형의 갈등 상황을 접한 사람들에 비

하여 이성 집단을 더욱 비인간화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성별 갈등이라는 사회 문제와 비인간화의 관련성을 탐색한 본 연구는 의미 있는 시도일 것이다.

다음으로,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에 성별 집단자존감과 성별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또 다른 의의이다. 구체적으로, 성별 집단자존감 수준에 따른 이성 집단에 대한 인간의 필수적 본성 평정의 차이는 남자 연구 참가자들 사이에서만 관찰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사한다. 첫째, 집단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집단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외집단 폄하를 한다는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이 지지되었으며(Crocker, Blaine, & Luhtanen, 1993; Long & Spears, 1998에서 재인용), 성별 집단자존감의 회복 전략으로 사람들이 외집단을 기계적 비인간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집단자존감과 내집단 편애, 외집단 폄하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비일관적이다(Branscombe & Wann, 1994; Long & Spears, 1998). 연구자는 집단자존감 척도의 하위척도들이 연구 별로 다르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결과들이 일관되지 않게 나온 것으로 추측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집단자존감 척도의 모든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종합하자면, 집단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집단자존감 회복 전략으로 외집단 폄하를 한다는 선행 연구자의 주장이 지지되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별 집단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성별 집단자존감을 회복하는 전략으로 외집단인 이성 집단을 기계적 비인간화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성별에 따라 성별 집단자존감 회복 전략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사회적으로 고 지위 집단으로 인식되는 남성들은 이미 기득권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집단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외집단인 여성 집단을 강하게 폄하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반면, 저 지위 집단으로 인식되는 여성들은 정체성을 소속 집단에서 분리하는 것이 집

단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되므로, 외집단인 남성 집단을 강하게 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연구 가설에 부합하게 남자연구 참가자들만 성별 집단자존감이 낮을수록 이성 집단을 인간의 필수적 본성 차원에서 더욱 비인간화(기계적 비인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별 집단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성별 집단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할 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를 성적 대상화 이외의 다른 맥락에서 연구한 것이 또 다른 의의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비인간화 선행연구들은 여러 각도에서 수행되었지만,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는 연구된 바가 적다. 또한 이성 집단 비인간화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연구하였다(Haslam, 2006; Haslam & Loughnan, 2014). 요컨대, 비인간화의 최근 연구들이 다양한 각도로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 연구는 연구의 초점이 성적 대상화에만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를 새로운 변수인 성별 갈등 상황과 연결지어 살펴보았다. 종합하자면, 성별 갈등과 이성 집단 비인간화의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 연구 분야에 새로운 연구 주제를 제공한 것이 본 연구의 의의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의 관련성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본 연구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다. 혹은 성별 갈등을 연구 주제로 다루지 않더라도, 성적 대상화 이외의 다른 변수와 이성 집단 비인간화의 관계를 연구할 수 있다는 시각을 비인간화 연구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 문제이다. 해외에서 수행되었던 선행 연구들에서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비인간화 척도의 신뢰도가 .47~.65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대체적으로 척도의 신뢰도가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 유독 척도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비인간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해외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비인간화 특질 척도를 한국에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기반이 부족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요컨대, 비인간화 특질 척도를 한국 문화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화 연구가 없다는 것이다. 혹은 비인간화 특질 척도 문항에 대한 연구 참가자들의 이해가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비인간화 특질 척도는 인간의 필수적 본성과 인간의 독특성 차원에서 관련성이 높은 10개 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개 문항은 각각 긍정적인 속성 5개(인간의 필수적 본성/인간의 독특성 차원과 관련성이 높으며 긍정적인 속성의 특질), 부정적인 속성 5개(인간의 필수적 본성/인간의 독특성 차원과 관련성이 높으며 부정적인 속성의 특질)로 이루어져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특질의 속성에 따라 척도를 나눠서 신뢰도를 살펴본 적은 없으나, 본 연구에서 속성에 따라 척도를 인간의 필수적 본성-긍정 5개 문항, 부정 5개 문항, 인간의 독특성-긍정 5개 문항, 부정 5개 문항으로 분리하여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하위척도들의 신뢰도는 .65~.81로 나타났다. 비록 위와 같이 긍정 속성들과 부정 속성들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근거는 없으나, 긍정-부정 차원에 따라 속성들을 구분하였을 때 내적합치도가 상승했다는 것은 문항의 특질 속성에 대한 한국 연구 참가자들의 이해가 선행연구들의 참가자들과는 달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해외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들의 연구 참가자들은 문항의 특질 속성과 무관하게 모든 문항이 인간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해하였다면, 본 연구의 연구 참가자들은 문항의 특질 속성에 따라 긍정적인 속성의 문항(‘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은 얼마나 사교적으로 보입니까?’)은 인간성과 관련된 것으로, 부정적인 속성의 문항(‘해당 집단의 구성원

들은 얼마나 알파한 것처럼 보입니까?)은 인간성과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여겼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인간화 척도의 문항들은 모두 인간성과 높은 관련성을 갖는 문항들이어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기존의 방법대로 전체 합산 점수로 신뢰도를 살펴봤을 때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특질 속성별로 문항들을 분리하여 살펴보았을 때는 신뢰도가 문제없는 수준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후속연구에서 선행연구의 비인간화 특질 척도를 이용하고, 더불어 인간성과 무관한 동물적인 속성(동물적 비인간화 차원), 기계적인 속성(기계적 비인간화 차원)을 평정하는 문항을 함께 사용한다면, 후속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척도의 신뢰도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비인간화 특질 척도와 동물적, 기계적 속성을 평정하게 하는 문항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연구 참가자들이 지시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응답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비인간화 특질 척도에서 인간의 필수적 본성 차원의 문항들을 낮은 점수를 주었다면, 인간의 필수적 본성을 덜 부여한 것(기계적 비인간화)이므로 기계적 속성을 평정하는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등의 일관된 반응을 예상할 수 있다. 비인간화 특질 척도와 동물적, 기계적 평정 문항에서의 반응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연구 참가자가 척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별 갈등이 한국 사회에서 현재 문제시되는 성별 갈등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인 여학생 휴게실 설치 문제를 소재로 성별 갈등 시나리오를 꾸몄지만, 이 시나리오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성별 갈등을 전반적으로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성별 갈등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며, 성별 갈등의 내용에도 여러 영역이 있을 것이다. 특정 문제를 성별 갈등이라고 인식하는 데에도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별 갈등 시나리오

는 성별에 따라 남학생, 여학생 집단 간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며, 통제 조건에서 제시하는 성별과 무관한 갈등 시나리오와 내용적으로 최대한 유사하게 구성하였다. 즉 통제 조건의 갈등 시나리오와 갈등 상황의 내용과 심각성 수준을 비슷하게 만들고자 하였기 때문에, 성별 갈등 상황에서 이성 집단에 대해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정서는 충분히 시나리오에 담지 못하였다. 그리고 연구를 설계할 때, 성별 갈등과 기타 갈등으로 갈등 유형만을 분류하였을 뿐 갈등의 심각성 수준이 서로 다른 여러 시나리오들을 연구 참가자들에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별 갈등 시나리오는 현실의 성별 갈등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가급적이면 성별 갈등을 여러 상황과 다양한 심각성 수준으로 구성한다면, 본 연구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성별 갈등과 이성 집단 비인간화의 관련성을 보다 면밀하게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성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를 자기보고 방법으로만 측정한 것이다. 자기보고 방법은 연구 참가자들이 사회적 바람직성을 고려하여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들에게 갈등 상황이 묘사된 애니메이션을 제시한 후, 갈등을 빚은 두 집단을 포함한 여러 사회 집단에 대해 비인간화 척도로 평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연구 참가자들은 연구 목적을 짐작하고 집단 간 갈등이나 차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떠올린 후, 갈등 상황에 묘사된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실제로 느낀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응답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를 서로 다른 연구자가 수행하는 별개의 연구로 소개하였지만, 이와 같은 조치가 연구 참가자들의 솔직한 응답을 이끌어냈다고 완전히 확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자기보고 방법 이외에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와 같은 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면

이성 집단 비인간화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요컨대 자기보고 측정 결과와 암묵적인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서로 다른 측정방법을 이용한 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함으로써, 이성 집단 비인간화에 대한 연구 참가자들의 반응을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경향신문 사회부 사건팀. (2016). 강남역 10번 출구, 1004개의 포스트잇: 어떤 애도와 싸움의 기록. 나무연필.
- 김금미, 한영석 (2002). 차별지각과 성별사회정체성이 여성의 남녀동등추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2), 1-14.
- 김수아 (2015). 한국 온라인 공간과 여성 혐오 정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리뷰, 38, 23-33.
- 김혜숙 (1993). 한국 집단자아존중 척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89-301, 10월 21-23일. 서울: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 김혜숙, 고재홍, 안미영, 안상수, 이선이, 최인철 (2003).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 유능성과 따뜻함 차원에서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21-143.
- 박소영 (2017, May 05). “강남역 살인사건이 남녀커플들에게 미친 영향”,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51361df7227a475b958be9222e6210f7>.
- 신은별 (2017, May 05). “여성은 ‘여전히 무섭다’ 남성은 ‘왜 그리 예민하나’”,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bf9a46042d0642e4a2d9db71f54b0153>.
- 안미영, 김혜숙 (2003). 집단 지위와 정당성 및 안정성이 차별지각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59-179.
- 안미영, 김혜숙, 안상수 (2004). 집단의 지위, 정당성 및 안정성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지각이 차별 경험에 미치는 영향: 성별집단과 지역집단의 경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107-135.

- 안상수, 김인순, 이정현, 윤보라 (2015).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Ⅱ): 청년층 남성의 성평등 가치 갈등 요인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265.
- 이나영 (2016). 여성혐오와 젠더차별, 페미니즘: ‘강남역 10번 출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사회학회지: 문화와 사회, 22, 147-186.
- 이상무 (2017, May 05). “강남역 살인사건 1년, 사회는 변한 게 없어요”,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8e5bc0e74b1e4341a7dc6273d10449ec>.
- 윤보라, 임옥희, 정희진, 시우, 루인, 나라. (2015). 여성혐오가 어쨌다구?: 별거벗은 말들의 세계. 현실문화.
- 원숙연, 최윤희 (2015). 조직 내 성차별 인식에 있어서 성별 집단자존감의 영향력: 서울시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9(1), 1-18.
- 조재성 (2015, December 02). “온라인 여성혐오·남성혐오, 6월 이후 ‘폭증’”, 이코노믹리뷰.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560>.
- 한덕웅, 성한기, 강혜자, 이경성, 최훈석, 박군석... 외. (2005). 사회심리학. 학지사.
-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2003). 성정체성,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그리고 집단 자존심이 남녀 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19-33.
- 우에노 지즈코 (上野 千鶴子, 2012).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女ぎらい——ニッポンのミソジニー-]. (나일등 역). 은행나무.
- Aberson, C. L., Healy, M., & Romero, V. (2000). Ingroup Bias and Self-Esteem: A Meta-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gy Review, 4, 157-173.

Allport, G. W. (1993). 편견의 심리[*The Nature of Prejudice*]. (이원영 역). 서울: 성원사.

Aronson, E. (2014). 인간, 사회적 동물[*The Social Animal*]. (박재호 역). 탐구당.

Barentsen, J. (2017). Understanding Peace and Conflict Through Social Identity Theory: Contemporary Global Perspectives. *Practical Theology*, 10, 321-322.

Bastian, B., & Haslam, N. (2010). Excluded from humanity: The dehumanizing effects of social ostracism.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 107-113.

Bastian, B., & Haslam, N. (2011). Experiencing dehumanization: Cognitive and emotional effects of everyday dehumanizati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3, 295-303.

Bates, L. (2017). 일상 속의 성차별[*Everyday Sexism*]. (안진이 역). 미메시스.

Branscombe, N. R., & Wann, D. L. (1994). Collective self-esteem consequences of outgroup derogation when a valued social identity is on trial.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4, 641-657.

Brewer, M. B., & Brown, R. J. (2010). Intergroup relations. In Fiske, S. T., Gilbert, D. T., & Lindzey, G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 pp. 554-595). Hoboken, N.J.: Wiley.

Cremer, D. (2001). Relations of Self-Esteem Concerns, Group Identification, and Self-Stereotyping to In-Group Favoritism.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1, 389-400.

- Deaux, K., & LaFrance, M. (2010). Gender. In Fiske, S. T., Gilbert, D. T., & Lindsey, G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1, pp. 788-829). Hoboken, N.J.: Wiley.
- Fasoli, F., Paladino, M. P., Carnaghi, A., Jetten, J., Bastian, B., & Bain, P. G. (2016). Not "just words": Exposure to homophobic epithets leads to dehumanizing and physical distancing from gay me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6*, 237-248.
- Fiske, S. T. (2010).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Fiske, S. T., Gilbert, D. T., & Lindsey, G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 pp. 357-414). Hoboken, N.J.: Wiley.
- Haslam, N. (2006). Dehumanization: An integrative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 252-264.
- Haslam, N., & Bain, P. (2007). Humanizing the Self: Moderators of the Attribution of Lesser Humanness to Othe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 57-68.
- Haslam, N., Bain, P., Douge, L., Lee, M., & Bastian, B. (2005). More human than you: Attributing humanness to self and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937-950.
- Haslam, N., & Loughnan, S. (2014). Dehumanization and infrahumaniz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5*, 399-423.
- Haslam, N., & Loughnan, S., Kashima, Y., & Bain, P. (2008). Attributing and denying humanness to other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9*, 55-85.
- Haslam, N., & Stratemeyer, M. (2016). Recent research on dehumanization.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1*, 25-29.

- Harris, L. T., & Fiske, S. T. (2011). Dehumanized perception: A psychological means to facilitate atrocities, torture, and genocide? *Zeitschrift für Psychologie*, *219*, 175-181.
- Heflick, N. A., Goldenberg, J. L., Cooper, D. P., & Puvia, E. (2011). From women to objects: Appearance focus, target gender, and perceptions of warmth, morality and compete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7*, 572-581.
- Hodson, G., & Costello, K. (2007). Interpersonal disgust, ideological orientations, and dehumanization as predictors of intergroup attitudes. *Psychological Science*, *18*, 691-698.
- Hunter, J. A. (2001). Self-Esteem and In-Group Bias Among Members of a Religious Social Category.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1*, 401-411.
- Koval, P., Laham, S. M., Haslam, N., Bastian, B., & Whelan, J. A. (2011). Our Flaws Are More Human Than Yours: Ingroup Bias in Humanizing Negative Characteristic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XX*, 1-13.
- Kteily, N., Bruneau, E., Waytz, A., & Cotterill, S. (2015). The ascent of man: Theoretical and empirical evidence for blatant dehuman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9*, 901-931.
- Leyens, J.-P., Demoulin, S., Vaes, J., Gaunt, R., & Paladino, M. P. (2007). Infracommunication: The wall of group differences.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1*, 139-172.
- Leyens, J.-P., Rodriguez, A. P., Rodriguez, R. T., Gaunt, R., Paladino, P. M., Vaes, J., et al. (2001). Psychological essentialism and the diff

- erential attribution of uniquely human emotions to ingroups and outgroup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 395-411.
- Loughnan, S., & Haslam, N. (2007). Animals and Androids: Implicit Associations Between Social Categories and Nonhumans. *Psychological Science*, *18*, 116-121.
- Loughnan, S., Haslam, N., & Kashima, Y. (2009).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ttribute-based and metaphor-based dehumanization.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12*, 747-762.
- Luhtanen, R., & Crocker, J. (1992). A collective self-esteem scale: Self-evaluation of one's social ident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302-318.
- Pereira, C., Vala, J., & Leyens, J.-P. (2009). From infra-humanization to discrimination: The mediation of symbolic threat needs egalitarians norm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 336-344.
- Pinker, S. (2014). 성의 패러독스: 극단적인 남자들, 재능 있는 여자들, 그리고 진정한 성 차이[The Sexual Paradox: Extreme Men, Gifted Women, and the Real Gender Gap]. (하정희 역). 인텔렉투스.
- Pruitt, D. G. (2010). Social conflict. In Fiske, S. T., Gilbert, D. T., & Lindzey, G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 pp. 470-504). Hoboken, N.J.: Wiley.
- Rudman, L. A., & Mescher, K. (2012). Of animals and objects: Men's implicit dehumanization of women and likelihood of sexual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 734-746.
- Susan, T. F. (2002). What we know now about bias and intergroup c

- onflict, the problem of the century.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11*, 123-128.
- Tajfel,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9.
- Trifiletti, E., Bernardo, G. A. D., Falvo, R., & Capozza, D. (2014). Patients are not fully human: a nurse's coping response to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4*, 768-777.
- Trounson, J. S., Critchley, C., & Pfeifer, J. E. (2015). Australian attitudes toward Asylum seekers: roles of dehumanization and social dominance theory.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3*, 1641-1656.
- Vaes, J., Leyens, J.-P., Paladino, M. P., & Miranda, M. P. (2012). We are human, they are not: Driving forces behind outgroup dehumanization and the humanization of the ingroup.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23*, 64-106.
- Wilde, V. K., Martin, K. D., & Goff, P. A. (2014). Dehumanization as a distinct form of prejudice. *Testing, Psychometrics, Methodology in Applied Psychology, 21*, 301-307.

ABSTRACT

Dehumanization for the Opposite Sex Group emerged by Gender Conflict: The Moderating Effects of Level of Gender Collective Self-Esteem and Participant's Gender

Jiyoung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e present research, it was examined whether gender conflict would affect dehumanization for the opposite sex group. In addition, it was further examined whether gender collective self-esteem and participant's gender would moderate the relation above.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n online questionnaire to answer the dehumanization scale and gender collective self-esteem scale for various social groups including two groups described in the conflict situation after watching the animation depicting the conflict situation. In the experimental condition, gender conflict situations were suggested. In the control condition, other conflict not related to gender were presented. The

participants were wirelessly assigned to one of the two conditions. No results were found to fully support the research hypothesi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dehumanization for the opposite sex group according to the type of conflict between condi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ender conflict did not affect the dehumanization of the opposite sex group. However, gender collective self-esteem and participant's gender effects were partially observed. According to the gender collective self-esteem level among the male participants, there was a difference in scores of dehumanization for the opposite sex group in dimension of human nature. Specifically, men with lower gender collective self-esteem levels gave lesser humanity in dimension of human nature to the opposite sex group.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nd future directions are discussed.

Keywords: gender conflict, opposite sex group, dehumanization, gender collective self-esteem, gender

부 록

부록 I. 예비연구 질문지

부록 II. 본 연구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부록 III. 비인간화 척도

부록 IV. 성별 집단자존감 척도

부록 I. 예비연구 질문지

이 설문지의 목적은 몇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시될 시나리오들을 주의 깊게 읽고 질문에 응답해주십시오.

시나리오 1

귀하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는 최근 졸업생 동문회 사무실 설치와 관련하여 논쟁이 뜨겁습니다. 몇 달 전, 학교에서는 학생 복지 사업으로 졸업생을 위한 동문회 공간을 설치하겠다는 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학교는 “학교를 방문한 졸업생들이 교류하고, 동문회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므로 동문회 사무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치 이유를 밝혔지만, 학생들 간에 논쟁이 벌어져 해당 사업은 보류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졸업 여부에 따라 재학생들은 반대하는 입장, 졸업생들은 찬성하는 입장으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재학생들은 ‘재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졸업생을 위한 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반대한 반면, 졸업생들은 ‘졸업생들이 학교에서 용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동문회 사무실은 필요하다’며 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 간에 벌어진 논쟁은 오프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학교 커뮤니티에서도 찬반토론이 벌어지는 등 아직까지도 학내에서 뜨거운 화제입니다.

다음은 일부 학생들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재학생(22): “아무래도 졸업생들은 재학생들보다 용무를 볼 수 있는 학교 공간이 부족할 것 같긴 해요. 그런 점에서 졸업생을 위한 공간이 있으면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학교에는 재학생을 위한 공간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재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더 이상 등록금을 내지 않는 졸업생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건 솔직히 역차별인 것 같아요.”

졸업생(26): “솔직히 교내 카페나 과방 등 학교에 용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졸업생들이 편하게 일을 보기는 어렵죠. 졸업생 동문회 사무실이 생기면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으니까 동문회 사무실을 만들면 좋겠어요.”

시나리오 2

귀하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는 최근 졸업생 고시실 설치와 관련하여 논쟁이 뜨겁습니다. 몇 달 전, 학교에서는 학생 복지 사업으로 졸업생을 위한 고시실을 설치하겠다는 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학교는 “졸업생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준비 등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졸업생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 만약 졸업생들이 시험에 합격한다면 학교의 위상도 올라갈 것이므로 학교에서는 투자를 하고자 한다”라고 설치 이유를 밝혔지만, 학생들 간에 논쟁이 벌어져 해당 사업은 보류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졸업 여부에 따라 재학생들은 반대하는 입장, 졸업생들은 찬성하는 입장으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재학생들은 ‘재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졸업생을 위한 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반대한 반면, 졸업생들은 ‘졸업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졸업생 고시실은 필요하다'며 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 간에 벌어진 논쟁은 오프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학교 커뮤니티에서도 찬반토론이 벌어지는 등 아직까지도 학내에서 뜨거운 화제입니다.

다음은 일부 학생들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재학생(22): “아무래도 졸업생들은 재학생들보다 공부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이 부족할 것 같긴 해요. 그런 점에서 졸업생을 위한 고시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학교에는 재학생을 위한 공간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재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더 이상 등록금을 내지 않는 졸업생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건 솔직히 역차별인 것 같아요.”

졸업생(26): “솔직히 교내 카페나 도서관 등 학교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재학생들이 우선되다 보니 졸업생들이 편하게 공부하기는 어렵죠. 졸업생 고시실이 생기면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고시실을 만들면 좋겠어요.”

다음은 시나리오 1(졸업생 동문회 공간 설치)과 시나리오 2(졸업생 고시실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시나리오 1과 2 중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더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로 여겨지십니까?

- 시나리오 1(졸업생 동문회 공간 설치)이 더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 같다.
- 시나리오 2(졸업생 고시실 설치)가 더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 같다.

2. 시나리오 1과 2 중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더 갈등 상황처럼 느껴지십니까?

- 시나리오 1(졸업생 동문회 공간 설치)이 더 갈등 상황처럼 느껴진다.
- 시나리오 2(졸업생 고시실 설치)가 더 갈등 상황처럼 느껴진다.

3. 시나리오 1과 2 중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법한 갈등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를 선택해주시시오.

- 시나리오 1(졸업생 동문회 공간 설치)이 더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갈등 상황 같다. (4번으로 이동하여 응답 후, 시나리오 3을 읽으십시오.)
- 시나리오 2(졸업생 고시실 설치)가 더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갈등 상황 같다. (5번으로 이동하여 응답 후, 시나리오 3을 읽으십시오.)

4. 3번에서 귀하가 선택한 시나리오에 대한 질문입니다.

4-1. 시나리오 1(졸업생 동문회 공간 설치)이 어느 정도로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대변하는 점수에 표시해주십시오.

매우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있을 법하다	매우 있을 법하다
1	2	3	4	5

4-2. 시나리오 1(졸업생 동문회 공간 설치)이 어느 정도로 갈등 상황처럼 느껴지십니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대변하는 점수에 표시해주십시오.

매우 갈등상황 같지 않다	약간 갈등상황 같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갈등상황 같다	매우 갈등상황 같다
1	2	3	4	5

5. 3번에서 귀하가 선택한 시나리오에 대한 질문입니다.

5-1. 시나리오 2(졸업생 고시실 설치)가 어느 정도로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대변하는 점수에 표시해주십시오.

매우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있을 법하다	매우 있을 법하다
1	2	3	4	5

5-2. 시나리오 2(졸업생 고시실 설치)가 어느 정도로 갈등 상황처럼 느껴지십니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대변하는 점수에 표시해주십시오.

매우 갈등상황 같지 않다	약간 갈등상황 같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갈등상황 같다	매우 갈등상황 같다
1	2	3	4	5

시나리오 3

귀하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는 최근 여학생 휴게실 설치와 관련하여 논쟁이 뜨겁습니다. 몇 달 전, 학교에서는 학생 복지 사업으로 여학생 휴게실을 설치하겠다는 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학교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상대적으로 학내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여학생을 위한 휴게 공간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치 이유를 밝혔지만, 학생들 간에 논쟁이 벌어져 해당 사업은 보류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성별에 따라 남학생들은 반대하는 입장, 여학생들

은 찬성하는 입장으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남학생들은 ‘전체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여학생들만을 위한 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반대한 반면, 여학생들은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학교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여학생 휴게실은 필요하다’며 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 간에 벌어진 논쟁은 오프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학교 커뮤니티에서도 찬반토론이 벌어지는 등 아직까지도 학내에서 뜨거운 화제입니다.

다음은 일부 학생들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남학생(23):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과방에서 자거나 쉬는 게 불편할 것 같긴 해요. 그런 점에서 여학생 휴게실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학교에 여학생을 위한 공간이 있다면, 남학생을 위한 공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전체 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여학생만을 위한 휴게실을 만드는 건 솔직히 역차별인 것 같아요.”

여학생(23): “솔직히 교내 카페나 과방 등 학교에 휴게 공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잠을 자거나 편하게 쉬기는 어렵죠. 여학생 휴게실이 생기면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쉴 수 있으니까 휴게실을 만들면 좋겠어요.”

6. 시나리오 3이 어느 정도로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대변하는 점수에 표시해주십시오.

매우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있을 법하다	매우 있을 법하다
1	2	3	4	5

7. 시나리오 3이 어느 정도로 갈등 상황처럼 느껴지십니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대변하는 점수에 표시해주십시오.

매우 갈등상황 같지 않다	약간 갈등상황 같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갈등상황 같다	매우 갈등상황 같다
1	2	3	4	5

8. 귀하는 시나리오 3에 제시된 남학생의 입장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귀하가 공감하는 정도를 가장 잘 대변하는 점수에 표시해주십시오.

매우 공감하지 않는다	약간 공감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공감한다	매우 공감한다
1	2	3	4	5

9. 귀하는 시나리오 3에 제시된 여학생의 입장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귀하가 공감하는 정도를 가장 잘 대변하는 점수에 표시해주십시오.

매우 공감하지 않는다	약간 공감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공감한다	매우 공감한다
1	2	3	4	5

부록 II. 본 연구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졸업생 고시실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귀하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는 최근 졸업생 고시실 설치와 관련하여 논쟁이 뜨겁습니다. 몇 달 전, 학교에서는 학생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졸업생을 위한 고시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학교는 “졸업생들이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 등으로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졸업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만약 졸업생들이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에 성공한다면, 학교의 위상도 올라갈 것이므로 학교에서는 졸업생들에게 투자를 하고자 한다.”라고 설치 이유를 밝혔지만, 학생들 간의 논쟁으로 인해 해당 사업은 보류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대체로 졸업 여부에 따라 재학생들은 반대하는 입장, 졸업생들은 찬성하는 입장으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재학생들은 ‘재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졸업생들만을 위한 고시실을 설치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반대한 반면, 졸업생들은 ‘졸업생들은 재학생들보다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졸업생 고시실은 필요하다.’며 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 간에 벌어진 논쟁은 오프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교 커뮤니티로까지 확대되는 등 아직까지도 학내에서 뜨거운 화제입니다.

다음은 일부 학생들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재학생(22): “아무래도 졸업생들은 재학생들보다 공부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이 부족할 것 같긴 해요. 그런 점에서 졸업생 고시실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학교에는 당연히 재학생을 위한 공간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재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더 이상 등록금을 내지 않는 졸업생만을 위한 고시실을 만드는 건 솔직히 역차별인 것 같아요.”

졸업생(26): “솔직히 교내 카페나 빈 강의실 등 학교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도서관과 같이 공부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에는 재학생들 출입이 우선시되다 보니 졸업생들이 편하게 공부하기는 어렵죠. 졸업생 고시실이 생기면 재학생들 눈치를 보지 않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 고시실을 만들면 좋겠어요.”

여학생 휴게실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귀하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는 최근 여학생 휴게실 설치와 관련하여 논쟁이 뜨겁습니다. 몇 달 전, 학교에서는 학생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여학생을 위한 휴게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학교는 “학생 휴게 공간이 있지만, 여학생들은 성적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월경과 같은 신체적 특성 상 남학생에 비해 학내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여학생을 위한 휴게 공간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치 이유를 밝혔지만, 학생들 간의 논쟁으로 인해 해당 사업은 보류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대체로 성별에 따라 남학생들은 반대하는 입장, 여학생들은 찬성하는 입장으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남학생들은 ‘전체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여학생들만을 위한 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반대한 반면, 여학생들은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학교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학생 휴게실은 필요하다.’며 찬성하였

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은 오프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교 커뮤니티로까지 확대되는 등 아직까지도 학내에서 뜨거운 화제입니다.

다음은 일부 학생들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남학생(23): “아무래도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과방에서 자거나 쉬는 게 불편할 것 같긴 해요. 그런 점에서 여학생 휴게실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학교에 여학생만을 위한 공간이 있다면 당연히 남학생만을 위한 공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전체 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여학생만을 위한 휴게실을 만드는 건 솔직히 역차별인 것 같아요.”

여학생(23): “솔직히 학생 회관이나 과방 등 학교에 휴게 공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잠을 자거나 편하게 쉬기는 어렵죠. 안전 문제도 신경 쓰이고요. 여학생 휴게실이 생기면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쉴 수 있으니까 휴게실을 만들면 좋겠어요.”

부록 Ⅲ. 비인간화 척도

◆ 직장인[학부 재학생/남성/대학 졸업생/여성/중산층]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직장인[학부 재학생/남성/대학 졸업생/여성/중산층] 집단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시된 질문을 읽고, 직장인 집단에 대한 귀하의 평소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점수에 표시해주시시오(1점=전혀 그렇지 않다, 6점=매우 그렇다).

귀하가 평소에 생각하였을 때, _____

1.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은 얼마나 신경이 과민해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2.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은 얼마나 사람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3.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은 얼마나 사교적으로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4.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은 얼마나 참을성이 없어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5.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은 얼마나 친근해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6.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은 얼마나 재미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은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8.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은 얼마나 공격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9.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은 얼마나 산만해지기 쉬운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10.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은 얼마나 질투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11.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은 얼마나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12.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은 얼마나 마음이 넓은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13.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은 얼마나 인색한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14.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은 얼마나 알뜰한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15.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은 얼마나 보수적으로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16.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은 얼마나 냉정한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17.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은 얼마나 무정한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18.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은 얼마나 철두철미한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19.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은 얼마나 체계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20.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은 얼마나 예의 바른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부록 IV. 성별 집단자존감 척도

◆ 이 페이지에서는 귀하가 소속된 성별 집단에 대한 생각을 조사할 것입니다. 즉 귀하가 남성[여성]이면 본인이 속한 전형적인 남성 집단[여성 집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시된 질문을 읽고, 귀하의 평소 생각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점수 칸에 표시해주십시오(1점=전혀 그렇지 않다, 6점=매우 그렇다).

귀하가 평소에 생각하였을 때, _____

1. 다른 사람들은 내가 속한 성별집단이 무능한 사회집단이라고 본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2. 나는 내가 속한 성별집단에서 가치 있는 구성원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3. 나는 가끔 내가 내 성별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유감스럽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4. 전반적으로, 내가 내 성별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느냐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5.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속한 성별집단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6. 나는 내 자신이 속해 있는 성별집단에 별로 공헌할 바가 없다고 느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일반적으로, 나는 내가 속한 성별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8. 내가 속한 성별집단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나의 의식에 중요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9. 전반적으로, 나는 내가 속한 성별집단이 가치롭지 못하다고 느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10. 일반적으로, 내 성별집단의 구성원이 됨은 나의 자아개념의 주요부분을 이루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11. 나는 내가 속한 성별집단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12. 나는 종종 내가 속한 성별집단에서 나 자신이 쓸모없는 구성원이라고 느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13.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속한 성별집단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14. 나는 내가 속한 성별집단에서 협조적인 구성원 중의 하나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